

지문번호	pg	주제	중요도
2025개념08	31	서구 자연 철학에서의 공간관의 변화 공간관의 변화 과정 현대 물리의 변화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	☆
2025통합09-가	259	쿤이 주장한 과학 혁명과 통약 불가능성 쿤의 통약 불가능성 개념 과학 공동체 인지과학의 패러다임	☆☆
2025통합09-나	259	과학 이론의 선택과 과학에 대한 파이어아벤트의 주장 파이어아벤트의 선택 패러다임 전환의 해석 포퍼와 쿤	☆☆
2025유형02나	14	아리스티포스와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와 그 반전 쾌락주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공리주의 학파간 차이 니체	☆☆☆
2025인예03	62	시대의 흐름에 따른 코나투스 의미 변화와 특성 코나투스의 역사 도가와 코나투스 스토아학파	☆☆
2025모고03-02나	184	고전적 연역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데카르트의 생산적인 연역법 데카르트의 연역법	☆
2025모고03-02가	184	기존의 귀납법을 보완하기 위한 베이컨의 참된 귀납법 EBS 원문 베이컨의 논증	☆
2025모고04-01	210	사르트르 존재론에서의 '나'와 '타자'의 관계 사르트르의 철학적 탐구 존재의 방식 카뮈	☆☆
2025인예11	97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의 내용 사건과 사태 동양철학 유전자결정론	☆☆☆
2025실전02-03	303	마음 읽기에 주목한 데넛의 지향계 이론의 주요 개념과 입장 지향계 이론 다중실현가능성이론	☆
2025인예01	54	『삼국사기』 편찬에 담긴 김부식의 의도 삼국사기의 역사적 배경 삼국사기의 의도 유교적 역사관	☆
2025유형02가	13	행복에 대한 동아시아 문화권 민간의 관점과 유가, 도가의 관점 동양철학의 행복 동서양의 행복 칸트의 행복	☆
2025인예12	101	리를 중심으로 세계를 설명하려 한 기정진의 사상 이기일원론 기정진의 이기론 임성주의 이기론	☆
2025인예05	71	개화기 과학기술에 대한 이항로와 박은식의 생각 개화기 과학기술의 도입 박은식의 생애 박은식의 <u>문명진화론</u>	☆☆☆

지문번호	pg	주제	중요도
2025개념08	31	서구 자연 철학에서의 공간관의 변화	
2025통합09-가	259	쿤이 주장한 과학 혁명과 통약 불가능성	
2025통합09-나	259	과학 이론의 선택과 과학에 대한 피어아벤트의 주장	
2025유형02나	14	아리스티포스와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와 그 반전	
2025인예03	62	시대의 흐름에 따른 코나투스 의미 변화와 특성	
2025모고03-02나	184	고전적 연역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데카르트의 생산적인 연역법	
2025모고03-02가	184	기존의 귀납법을 보완하기 위한 베이컨의 참된 귀납법	
2025모고04-01	210	사르트르 존재론에서의 '나'와 '타자'의 관계	
2025인예11	97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의 내용	
2025실전02-03	303	마음 읽기에 주목한 데넷의 지향계 이론의 주요 개념과 입장	
2025인예01	54	『삼국사기』 편찬에 담긴 김부식의 의도	
2025유형02가	13	행복에 대한 동아시아 문화권 민간의 관점과 유가, 도가의 관점	
2025인예12	101	리를 중심으로 세계를 설명하려 한 기경진의 사상	
2025인예05	71	개화기 과학기술에 대한 이항로와 박은식의 생각	

Day 1	
✓ 모의고사 복습	
Day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구 철학에서의 공간관의 변화 (3) ✓ 쿤이 주장한 과학 혁명과 통약 불가능성 (3) ✓ 과학 이론의 선택과 과학에 대한 피어아벤트의 주장 (3) 	
Day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리스티포스와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와 그 반전 (5) ✓ 시대의 흐름에 따른 코나투스 의미 변화와 특성 (3) 	
Day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귀납법을 보완하기 위한 베이컨의 참된 귀납법 (2) ✓ 고전적 연역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데카르트의 생산적인 연역법 (1) ✓ 사르트르 존재론에서의 '나'와 '타자'의 관계 (3) 	
Day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의 내용 (4) ✓ 마음 읽기에 주목한 데넷의 지향계 이론의 주요 개념과 입장 (2) 	
Day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국사기』 편찬에 담긴 김부식의 의도 (3) ✓ 행복에 대한 동아시아 문화권 민간의 관점과 유가, 도가의 관점 (3) 	
Day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를 중심으로 세계를 설명하려 한 기정진의 사상 (3) ✓ 개화기 과학기술에 대한 이항로와 박은식의 생각 (3) 	

이비에스
배경지식의
이해

문제

DAY 1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며, 언어로 표현된 개념을 통해 사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존재와 구별된다. 이런 언어 개념은 여러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 언어 개념은 보편성을 갖는데, 이는 실제 현실의 대상에 비해 언어 개념이 추상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특징은 현실의 대상은 늘 변화하는 데 반해 언어 개념은 고정적이라는 점이다. 즉 언어 개념과 실제 대상 사이에는 언제나 간극이 존재한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의 사상가들이 제시한 언어 개념에 대한 생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사회 질서를 위한 언어 개념의 역할에 관심을 둔 공자와 순자의 사상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언어 개념과 실제 대상의 본질과의 관계를 탐구한 노자와 장자의 사상이다.

공자는 혼란한 사회 속에서 언어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전제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공자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명분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그 명분은 분명한 언어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된 언어가 제대로 사용되어야 사회 질서가 잡히고 바람직한 공동체가 형성될 것이라 보았다. 이러한 공자의 사상을 정명 사상이라고 한다. 정명 사상은 순자에 이르러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 순자는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언어적 명칭은 선천적으로 고정된 의미가 없으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약속하여 해당 명칭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 대상의 이름, 즉 언어 개념이 되는 것이라 보았다. 순자는 사회 질서를 위해 사회적 규범이라 할 수 있는 예를 중시한 사상가인데, 예는 대상 간의 분별을 올바르게 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이러한 입장에서 순자는 귀천을 밝히고 대상을 서로 구별하기 위해서 언어 개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즉 순자는 사회 질서 유지라는 실용적 관점에서 언어 개념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이다.

한편 노자와 장자의 사상은 문명 비판적이고 반권위주의적인 특징을 갖는다. 공자, 순자와 같은 유가가 기존 질서의 전통과 권위를 존중하고 그것을 계승하며 유지하려고 한 사상이라면, 노자, 장자와 같은 도가는 기존의 질서를 비판하고 그것에 대한 반성을 모색한 사상이다.

인위를 배제한 자연 상태인 무위자연을 추구하는 노자는 언어 개념을 인위적인 세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노자는 모든 것이 언어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언어 개념을 통해 대상을 인식하는 현실 세계를 유명(有名)의 세계라 표현하였다. 그리고 이런 현실 세계에서 사용하는 언어 개념을 가짜 이름이라고 여겼다. 이는 언어 개념이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상의 본질은 언어 개념으로 표현되기 이전의 상태이며, 노자는 이것을 무명(無名) 혹은 무(無)로 표현했다. 노자는 유명한 세계에서 사용하는 언어 개념을

통해서 무명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무명의 세계가 유명한 세계보다 앞서고 본질적인 것이라 생각하였다. 이런 노자의 입장은 장자에 의해서 계승되었다. 장자에 의하면 언어 개념은 상대적이며 유한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상의 본질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다.

0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간은 언어로 표현된 개념을 통해 사고를 할 수 있다.
- ② 공자는 사회 질서를 위한 언어 개념의 역할에 관심을 가졌다.
- ③ 도가는 기존 질서의 전통과 권위를 비판하고 그것에 대한 반성을 모색한 사상이다.
- ④ 공자는 사람들이 분명한 언어로 표현된 자신의 명분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 ⑤ 노자는 문명 비판적인 언어 개념을 사용하여 무명의 세계의 본질을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02. ㉠ 을 보여 주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모든 사람은 얼굴과 특성이 다르지만, 우리는 그 모두를 '사람'이라고 칭한다.
- ② '사자'라는 이름에 사용된 문자의 형태는 실제 사자의 외적인 형태와 관련이 없다.
- ③ 실제 하늘이라는 대상은 하나이지만, 언어의 종류에 따라 '하늘', 'sky'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 ④ 하늘의 별을 '별'이라고 이름 지어 사회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으므로, 별을 임의로 '별'이나 '불'로 부를 수 없다.
- ⑤ 중세 국어에서는 '어리다'라는 단어가 '어리석다'라는 의미이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나이가 적다'라는 의미로 변화했다.

03. 윗글의 순자의 입장에서 <보기>에 대해 보일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말과 소는 사실 오장육부를 가지고 있는 짐, 네 다리를 가지고 있는 짐 등 같은 짐이 많다. 이처럼 모든 대상은 같은 짐에 주목하면 모두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말은 소이고, 소는 말이며, 만물은 하나로 결국 동등하다.

- ① 언어 개념은 선천적으로 고정된 의미가 있으므로, 말은 소가 될 수 없다.
- ② 대상의 같은 짐에 주목하는 것은 언어 개념의 사용을 통해 귀천을 밝히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③ 말과 소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언어 개념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회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
- ④ '말은 소이고, 소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약속에 의해 정해진 언어 개념을 어지럽혀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 ⑤ '만물은 하나로 결국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들 간의 분별을 없애는 것으로, 예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4~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미국의 생물학자 윌슨은 하등 생물에서 고등 생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생물학을 목표로 사회 생물학을 주창하였다. 그는 사회 생물학을 모든 사회 행동의 생물학적 기초에 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하고, 사회를 유전학과 진화론에 기초하여 규명하지 않는다면 사회 현상을 올바르게 설명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그는 인간의 윤리 문제도 생물학적 검증이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와 윤리 등과 관련된 인간의 의식도 뇌의 시상 하부와 대뇌변연계에 있는 정서 중추에 의해 형성되고 제어되며, 유전자의 특성이 이기적이든 이타적이든 생명체가 지니는 특성은 결국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윌슨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인문학적 통찰이 ㉠ 부족하다는 비판도 존재하는데, ㉡ 이러한 비판을 방어할 수 있는 철학적 근거로서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이 제시되기도 한다.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자신의 철학에서 이념적 기초로 제시한 개념인 '현실적 존재자'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화이트헤드에 따르면, 현실적 존재자는 세계를 구성하는 궁극적 실체이다. 현실적

존재자는 다양한데, 신도, 허공 속에 ㉢ 부유하는 먼지도,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도 모두 현실적 존재자이다. 이들은 존재적 중요성이나 기능에는 차이가 있지만 현실적 존재자라는 면에서는 같다. 화이트헤드에게 있어 현실적 존재자란 과거를 주어진 조건으로 하여 미래를 새롭게 ㉣ 창출하는 과정 속의 실체이다. 그런 점에서 신도 먼지도 세포도 순수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실적 존재자는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이다.

화이트헤드는 우리의 현실 세계는 현실적 존재자들 사이의 관계망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유기체라고 하면서, 현실적 존재자들의 협력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강조하였다. 특히 그는 각각의 현실적 존재자들이 서로를 파악하는 과정인 '공재(togetherness)'와 통일성을 이루는 과정인 '합생(concrescence)'을 거쳐 새로운 현실적 존재자가 생성되며, 이 새로운 현실적 존재자는 다시 그러한 과정을 거쳐 또 다른 새로운 현실적 존재자를 생성하는 데 참여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때의 일련의 과정은 존재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이미 정해져 있는 질서를 따르는데, 하나의 현실적 존재자는 ㉤ 후속하는 새로운 현실적 존재자에게는 주어진 조건, 즉 여건이 되고 또 그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고도 하였다. 나아가 화이트헤드는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현실적 존재자는 질서에 따라 변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전 단계로 되돌릴 수 없는 고유성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화이트헤드가 '현실적 존재자는 조각난 단편이 아니라 필떡거리는 경험의 방울'이라고 표현한 것은 현실적 존재자의 특성을 역설한 것이다.

그렇다면 화이트헤드의 철학이 생물학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일까? 화이트헤드는 현실적 존재자는 주체적으로는 소멸하지만 객체적으로는 불멸한다는 점을 피력하였다. 다시 말해, 현실적 존재자는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후속하는 새로운 현실적 존재에게 여건이 되기 때문에 객체적으로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현실적 존재자 내부에 미래가 잠재되어 있다는 말로도 표현되는데, 이는 화이트헤드의 철학과 생물학이 ㉥ 접하는 지점이 된다. 생명체는 유전자가 끊임없이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것, 즉 개체 유전을 통해 객체적 불멸성을 실현한다. 앞선 존재자와 후속하는 존재자로 이어지는 과정은 질서를 통해 이루어지고 공재와 합생을 거치며 생명체의 존재 목적이 달성된다. 화이트헤드는 생명체의 존재 목적은 자신의 세대를 마감한 후에 다음 세대로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주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목적을 생명 중추라고 칭하였다. 현실적 존재자로서 생명체는 개체 유전을 통해 생명 중추를 달성하고 미래의 존재자에게 결정적 여건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이 사회 생물학의 유전자 결정론을 지지하는 근거로 평가되는 이유를 잘 설명해 준다.

04.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윌슨은 사회 현상을 올바르게 설명하려면 생물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② 윌슨은 하등 생물과 고등 생물에 모두 적용되는 생물학을 정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③ 화이트헤드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세포들도 현실적 존재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④ 화이트헤드는 생명체의 중요 기관인 생명 증추를 통해 개체 유전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 ⑤ 화이트헤드는 생명체의 존재 목적은 후속하는 생명체에게 유전자를 물려주는 것이라고 보았다.

05.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생명체는 여러 현실적 존재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존재이다.
- ② 생명체는 생명을 본질로 하지만 결국 소멸하는 일시적 존재이다.
- ③ 생명체의 개체 유전은 생명체의 독립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 ④ 생명체의 현재 속에는 미래의 생명체에게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내재되어 있다.
- ⑤ 생명체의 특징은 생명체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의 무작위적 결합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06. 윗글의 '화이트헤드'의 관점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A라는 현실적 존재자와 B라는 현실적 존재자가 일련의 과정을 거쳐 W_{AB} 라는 새로운 현실적 존재자를 형성하였다.

- ① W_{AB} 를 A와 B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② A와 B는 W_{AB} 의 여건이자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
- ③ W_{AB} 를 이루기 위해 A와 B는 서로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쳤다.
- ④ A와 B는 W_{AB} 내에 있는 현실적 존재자로서 W_{AB} 의 특성을 모두 포괄한다.
- ⑤ W_{AB} 는 A와 B가 상호작용의 관계 속에서 합생하는 과정을 거쳐 실제하게 된 것이다.

07. <보기>의 (가), (나)를 윗글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가) 데카르트는 실체가 존재하는 데는 자기 자신 이외의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실체의 존재는 실체가 놓여 있는 여건이나 환경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생명체는 생존에 적절한 여건이나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존재를 위협받게 된다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 환원주의는 복잡한 현상의 원인을 단순한 현상에서 찾는 것으로서 복잡한 구조와 속성이 부분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고 보는 신념이다. 환원주의에서는 생명체를 부분의 결합체로 설명하는데, 이는 부분의 속성을 전체도 그대로 가진다고 추론하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 환원주의는 생명체가 유전자의 복잡한 상호 작용을 통해 탄생하고 유지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 ① (가): 데카르트가 실체가 존재하는 데는 자기 자신 이외의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본 것은, 현실 세계를 현실적 존재자들 사이의 관계망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하나의 유기체라고 설명하는 화이트헤드의 관점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가): 생명체는 적절한 여건이나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존재를 위협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화이트헤드와 마찬가지로 현실적 존재자의 주체적 소멸을 줄이는 것이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나): 환원주의에서 복잡한 구조와 속성이 부분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고 본 것은, 현실적 존재자를 '펼떡거리는 경험의 방울'이라고 설명하며 현실적 존재자를 동태적 존재로서 인식한 화이트헤드의 관점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나): 생명체를 부분의 결합으로 보고 생명체를 이루는 부분의 속성을 생명체가 그대로 가진다고 추론하는 것은, 현실적 존재자는 과거를 여건으로 하여 미래를 새롭게 창출한다는 화이트헤드의 시각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나) : 환원주의가 생명체의 여러 부분은 복잡한 상호 작용을 통해 유지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은,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존재도 결국에는 현실적 존재자라는 면에서 동일하다는 화이트헤드의 주장을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08.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모자란다는
- ② ㉡ : 떠다니는
- ③ ㉢ : 찾아내는
- ④ ㉣ : 뒤잇는
- ⑤ ㉤ : 맞닿는

[9~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중세부터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기까지 생리학 분야의 절대적 권위는 2세기 경 그리스 의학을 집대성한 갈레노스에게 있었다. 갈레노스에 따르면, 정맥피는 간에서 생성되어 정맥을 타고 온몸으로 영양분을 전달하면서 소모된다. 정맥피 중 일부는 심실벽인 격막의 구멍을 통과하여 우심실에서 좌심실로 이동한 후, 거기에서 공기의 통로인 폐정맥을 통해 폐에서 유입된 공기와 만나 동맥피가 된다. 그 다음에 동맥피는 동맥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 생기를 전해 주면서 소모된다. 이 이론은 피의 전달 경로에 대한 근본적인 오류를 포함하고 있었으나, 갈레노스의 포괄적인 생리학 체계의 일부로서 권위 있게 받아들여졌다. 중세를 거치면서 인체 해부가 가능했지만, 그러한 오류들은 고대의 권위를 추종하는 학문 풍토 때문에 시정되지 않았다.

16세기에 이르러 베살리우스는 해부를 통해 격막에 구멍이 없으며, 폐정맥이 공기가 아닌 피의 통로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후 심장에서 나간 피가 폐를 통과한 후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폐순환이 발견되자 갈레노스의 피의 소모 이론은 도전에 직면했다. 그러나 당시의 의학자들은 갈레노스의 이론에 얽매어 있었으므로 격막 구멍이 없다는 사실로 인해 생긴 문제, 즉 우심실에서 좌심실로 피가 옮겨 갈 수 없는 문제를 폐순환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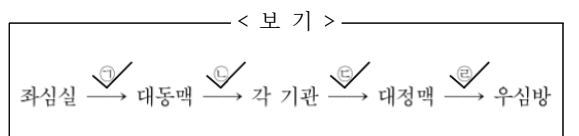
이러한 판도를 바꾼 사람은 하비였다. 그는 생리학에 근대적인 정량적 방법을 도입했다. 그는 심장의 용적을 측정하여 심장이 밀어내는 피의 양을 추정했다. 그 결과, 심장에서 나가는 동맥피의 양은 섭취되는 음식물의 양보다 훨씬 많았다. 먹은 음식물보다 더 많은 양의 피가 만들어질 수 없으므로 하비는 피가 순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했다. 하비는 끈으로 자신의 팔을 묶어 동맥과 정맥을 함께 압박하였다. 피의 흐름이 멈추자 피가 통하지 않는 손은 차가워졌다. 동맥을 차단했던 끈을 약간 늦추어 동맥피만 흐르게 해 주자 손은 이내 생기를 회복했고, 잠시 후 여전히 끈에 압박되어 있던 정맥의 말단 쪽 혈관이 부풀어 올랐다. 끈을 마저 풀어 주자 부풀어 올랐던 정맥은 이내 가라앉았다. 이로써 동맥으로 나갔던 피가 손을 돌아 정맥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이 실험을 근거로 하비는 1628년에 '좌심실→대동맥→각 기관→대정맥→우심방→우심실→폐동맥→폐→폐정맥→좌심방→좌심실'로 이어지는 피의 순환 경로를 제시했다. 반대자들은 해부를 통해 동맥과 정맥의 말단을 연결하는 통로를 찾을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얼마 후, 말피기가 새로 발명된 현미경으로 모세혈관을 발견하면서 피의 순환 이론은 널리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폐와 그 밖의 기관들을 피가 따로 순환해야 하는 이유를 포함하여 다양한 인체 기능을 설명하는 새로운 생리학의 구축이 시작되었다.

09. 위 글로 보아 '피의 순환 이론'의 성립이나 수용에 기여하지 않은 것은?

- ① 새로운 생리학의 구축
- ② 과학적 발견들과의 부합
- ③ 정량적 사고방식의 채택
- ④ 새로운 관찰 도구의 도입
- ⑤ 실험적 방법의 적극적 활용

10. <보기>는 '하비'가 제시한 피의 순환 경로의 일부이다. '하비'가 끈 실험에서 차단했던 위치를 바르게 지적한 것은? [1점]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11. <보기>의 관점에 따라 위 글의 사례를 해석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성공적인 과학 이론은 '패러다임'이 되어 후속하는 과학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과학자들은 패러다임에서 연구의 방법, 연구 주제 등을 발견한다. 이러한 '정상 과학' 활동에서 때때로 기존의 패러다임과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과학적 발견인 '변칙 사례'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변칙 사례들이 패러다임을 당장에 '무효화'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변칙 사례가 누적되면서 위기가 도래한다. 이때 새로운 과학 이론이 등장하여 기존의 패러다임과 경쟁을 벌인다. 그러다가 어떤 이유로 새로운 이론이 과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지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는데, 이것이 '과학 혁명'이다.

- ① 갈레노스의 이론은 오랫동안 널리 받아들여진 이론이므로 '패러다임'이었겠군.
- ② 갈레노스에 대한 강력한 추종이 있었던 중세의 생리학은 '정상 과학'이었겠군.
- ③ 폐정맥에서 피가 발견된 것은 갈레노스의 이론과 합치되지 않으므로 '변칙 사례'에 속하겠군.
- ④ 폐순환의 발견은 경험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갈레노스의 이론을 '무효화'하지 못하겠군.
- ⑤ 하비의 순환 이론이 갈레노스의 이론을 대신하여 수용된 것이 '과학 혁명'이었겠군.

[12~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쾌락주의는 모든 쾌락이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으며 쾌락의 증가와 고통의 감소를 통해 최대의 쾌락을 산출하는 행위를 올바른 것으로 간주하는 윤리설이다. 쾌락주의에 따르면 쾌락만이 내재적 가치를 지니며, 모든 것은 이러한 쾌락을 기준으로 가치 평가되어야 한다. 쾌락주의는 고대의 에피쿠로스학에 의해서는 개인의 쾌락을 중시하는 이기적 쾌락주의로, 근대의 벤담과 밀에 의해서는 사회 전체의 쾌락을 중시하는 ㉠ 쾌락주의적 공리주의로 체계화되었다.

그런데 쾌락주의자는 단기적이고 말초적인 쾌락만을 추구함으로써 결국 고통에 빠지게 된다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쾌락주의적 삶을 순간적이고 감각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방탕한 삶과 동일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쾌락주의는 일시적인 쾌락의 극대화가 아니라 장기적인 쾌락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므로 단기적, 말초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성취가 장기적으로 더 큰 쾌락을 가져다준다면 쾌락주의자는 단기적 쾌락보다는 사회적 성취를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또한 쾌락주의는 쾌락 이외의 것은 모두 무가치한 것으로 본다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쾌락주의가 쾌락만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는 쾌락 말고도 가치 있는 것들이 있으며, 심지어 고통조차도 가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발이 불구덩이에 빠져서 통증을 느껴 곧바로 발을 빼낸 상황을 생각해 보자. 이때의 고통은 분명히 좋은 것임에 틀림없다. 만약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면, 불구덩이에 빠진 발을 꺼낼 생각을 하지 못해서 큰 부상을 당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때 고통이 가치 있다는 것은 도구적인 의미에서 그런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쾌락주의는 고통을 도구가 아닌 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본다. 금욕주의자가 기꺼이 감내하는 고통조차도 종교적·도덕적 성취와 만족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인 것이지 고통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세속적 금욕주의자들은 재화나 명예와 같은 사회적 성취를 위해 당장의 쾌락을 포기하며, 종교적 금욕주의자들은 내세의 성취를 위해 현세의 쾌락을 포기하는데, 그것이 사회적 성취이든 내세적 성취이든간에 모두 광의의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쾌락주의가 여러 오해로 인해 부당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쾌락주의가 어떠한 비판으로부터도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쾌락주의는 쾌락의 정의나 쾌락의 계산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갖고 있다. 쾌락의 원천은 다양한데, 과연 서로 다른 쾌락을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가? 가령 식욕의 충족에서 비롯된 쾌락과 사회적 명예의 획득에서 비롯된 쾌락은 같은 것인가? 이에 대해 벤담은 이 쾌락들이 질적으로 동일하며 양적으로 다

를 뿐이라고 대답함으로써 쾌락주의의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었으나, 저급한 쾌락과 고차원적인 인간의 쾌락을 동일시하여 결국 쾌락과 인간을 동등한 존재로 간주하였다는 점에서 비쾌락주의자로부터 ‘쾌락의 철학’이라고 비판받았다. 밀은 만족한 쾌락보다 불만족한 인간이 더 낫고, 만족한 바보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고 주장하면서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했다. 그런데 이 입장을 취하게 되면, 이질적인 쾌락을 어떻게 서로 비교할 수 있는가 하는 계산의 문제가 발생한다. 밀은 이질적인 쾌락이라고 해도 양자를 모두 경험한 다수의 사람이 선호하는 쾌락을 고급 쾌락이라고 하면서 저급 쾌락과 고급 쾌락을 구분하였다. 인간은 자유롭고 존엄한 삶을 추구하는 존재인데, 이러한 자유와 존엄성의 실현에 기여하는 고급 쾌락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후대의 다른 쾌락주의자들은 ㉡ 밀이 쾌락주의의 입장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하기도 하였다.

12. 위 글에 나타난 쾌락주의의 입장이 아닌 것은?

- ① 고통은 그 자체로서 목적적 가치를 지닌 것은 아니다.
- ② 단기적이고 말초적인 쾌락은 내재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
- ③ 쾌락이 아닌 다른 것도 도구적 의미에서 가치를 지닐 수 있다.
- ④ 금욕주의자가 고통을 감내하는 것도 결국은 쾌락을 위한 것이다.
- ⑤ 두 행위 중 결과적으로 더 큰 쾌락을 산출하는 행위가 옳은 것이다.

13. ㉠의 입장에서 <보기>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쾌락주의는 사디스트가 쾌락을 얻기 위해 가학적 행위를 하는 것도 옳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 ① 사디스트의 가학적 행위는 그 동기가 나쁘기 때문에 그른 것이다.
- ② 사디스트의 가학적 행위는 그 자신의 쾌락을 증진해 주기 때문에 옳은 것이다.
- ③ 사디스트의 가학적 행위는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그른 것이다.
- ④ 사디스트가 가학적 행위로 얻는 쾌락은 타인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다.
- ⑤ 사디스트가 가학적 행위로 얻는 쾌락보다 그로 인한 희생자의 고통이 더 클 경우에 가학적 행위는 그른 것이다.

14. 위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밀은 쾌락이 도구적 가치를 지닌다는 입장을 포기하였다.
- ② 밀은 도덕적 가치 평가에서 쾌락 이외의 다른 기준을 도입하였다.
- ③ 밀은 쾌락의 원천이 단일하지 않고 다양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 ④ 밀은 모든 쾌락을 하나의 기준으로 환원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⑤ 밀은 질적 차이가 있는 쾌락을 서로 비교하여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비에스
배경지식의
이해

해설

DAY 1

1주차	2025 수능완성 158p
[1~3]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며, 언어로 표현된 개념을 통해 사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존재와 구별된다. 이런 언어 개념은 여러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 언어 개념은 보편성을 갖는데, 이는 실제 현실의 대상에 비해 언어 개념이 추상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특징은 현실의 대상은 늘 변화하는 데 반해 언어 개념은 고정적이라는 점이다. 즉 언어 개념과 실제 대상 사이에는 언제나 간극이 존재한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의 사상가들이 제시한 언어 개념에 대한 생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사회 질서를 위한 언어 개념의 역할에 관심을 둔 공자와 순자의 사상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언어 개념과 실제 대상의 본질과의 관계를 탐구한 노자와 장자의 사상이다.

공자는 혼란한 사회 속에서 언어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전제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공자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명분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그 명분은 분명한 언어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된 언어가 제대로 사용되어야 사회 질서가 잡히고 바람직한 공동체가 형성될 것이라 보았다. 이러한 공자의 사상을 정명 사상이라고 한다. 정명 사상은 순자에 이르러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 순자는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언어적 명칭은 선천적으로 고정된 의미가 없으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약속하여 해당 명칭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 대상의 이름, 즉 언어 개념이 되는 것이라 보았다. 순자는 사회 질서를 위해 사회적 규범이라 할 수 있는 예를 중시한 사상가인데, 예는 대상간의 분별을 올바르게 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이러한 입장에서 순자는 귀천을 밝히고 대상을 서로 구별하기 위해서 언어 개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즉 순자는 사회 질서 유지라는 실용적 관점에서 언어 개념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이다.

한편 노자와 장자의 사상은 문명 비판적이고 반권위주의적인 특징을 갖는다. 공자, 순자와 같은 유가가 기존 질서의 전통과 권위를 존중하고 그것을 계승하며 유지하려고 한 사상이라면, 노자, 장자와 같은 도가는 기존의 질서를 비판하고 그것에 대한 반성을 모색한 사상이다.

인위를 배제한 자연 상태인 무위자연을 추구하는 노자는 언어 개념을 인위적인 세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노자는 모든 것이 언어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언어 개념을 통해 대상을 인식하는 현실 세계를 유명(有名)의

세계라 표현하였다. 그리고 이런 현실 세계에서 사용하는 언어 개념을 가짜 이름이라고 여겼다. 이는 언어 개념이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상의 본질은 언어 개념으로 표현되기 이전의 상태이며, 노자는 이것을 무명(無名) 혹은 무(無)로 표현했다. 노자는 유명한 세계에서 사용하는 언어 개념을 통해서 무명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무명의 세계가 유명한 세계보다 앞서고 본질적인 것이라 생각하였다. 이런 노자의 입장은 장자에 의해서 계승되었다. 장자에 의하면 언어 개념은 상대적이며 유한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상의 본질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다.

01. 밑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간은 언어로 표현된 개념을 통해 사고를 할 수 있다.
- ② 공자는 사회 질서를 위한 언어 개념의 역할에 관심을 가졌다.
- ③ 도가는 기존 질서의 전통과 권위를 비판하고 그것에 대한 반성을 모색한 사상이다.
- ④ 공자는 사람들이 분명한 언어로 표현된 자신의 명분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 ⑤ 노자는 문명 비판적인 언어 개념을 사용하여 무명의 세계의 본질을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02. ㉠ 을 보여 주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모든 사람은 얼굴과 특성이 다르지만, 우리는 그 모두를 '사람'이라고 칭한다.
- ② '사자'라는 이름에 사용된 문자의 형태는 실제 사자의 외적인 형태와 관련이 없다.
- ③ 실제 하늘이라는 대상은 하나이지만, 언어의 종류에 따라 '하늘', 'sky'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 ④ 하늘의 별을 '별'이라고 이름 지어 사회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으므로, 별을 임의로 '밭'이나 '불'로 부를 수 없다.
- ⑤ 중세 국어에서는 '어리다'라는 단어가 '어리석다'라는 의미이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나이가 적다'라는 의미로 변하였다.

01. 밑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문단에서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며, 언어로 표현된 개념을 통해 사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존재와 구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2문단에서 공자는 사회 질서를 위한 언어 개념의 역할에 관심을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4문단에서 도가는 기존의 질서를 비판하고 그것에 대한 반성을 모색한 사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3문단에서 공자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명분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그 명분은 분명한 언어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⑤ 5문단에서 노자는 언어 개념으로 표현되기 이전의 상태가 대상의 본질이며, 이것을 무명(無名) 혹은 무(無)로 표현했다고 하였다. 노자는 유명 세계에서 사용하는 언어 개념을 통해서 무명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을 뿐, 문명 비판적인 언어개념을 사용하여 무명의 세계의 본질을 만들 수 있다고 본 것은 아니다.

02. ㉠ 을 보여 주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얼굴과 특성이 다른 여러 사람을 모두 '사람'이라고 칭하는 것은, 실제 현실의 여러 대상을 우리가 하나의 언어 개념으로 가리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실제 현실의 대상에 비해 언어 개념이 추상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② '사자'라는 이름에 사용된 문자의 형태가 실제 사자의 외적인 형태와 관련이 없다는 것은, 언어 개념에 사용된 표음 문자의 형태와 언어 개념이 가리키는 실제 대상의 외적 형태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 ③ 하늘이라는 하나의 대상이 언어의 종류에 따라 '하늘', 'sky'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실제 현실의 대상과 언어 개념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 ④ 하늘의 별을 '별'이라고 이름 지어 사회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으면 개인이 별을 임의로 '밭'이나 '불'로 부를 수 없다는 것은, 언어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의 약속이어서 개인이 임의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 ⑤ 중세 국어에서는 '어리다'라는 단어가 '어리석다'라는 의미이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나이가 적다'라는 의미로 변한 것은, 언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라지고 새로 생기며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03. 윗글의 순자의 입장에서 <보기>에 대해 보일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말과 소는 사실 오장육부를 가지고 있는 짐, 네 다리를 가지고 있는 짐 등 같은 짐이 많다. 이처럼 모든 대상은 같은 짐에 주목하면 모두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말은 소이고, 소는 말이며, 만물은 하나로 결국 동등하다.

- ① 언어 개념은 선천적으로 고정된 의미가 있으므로, 말은 소가 될 수 없다.
- ② 대상의 같은 짐에 주목하는 것은 언어 개념의 사용을 통해 귀천을 밝히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③ 말과 소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언어 개념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회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
- ④ '말은 소이고, 소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약속에 의해 정해진 언어 개념을 어지럽혀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 ⑤ '만물은 하나로 결국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들 간의 분별을 없애는 것으로, 예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03. 윗글의 순자의 입장에서 <보기>에 대해 보일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말과 소는 사실 오장육부를 가지고 있는 짐, 네 다리를 가지고 있는 짐 등 같은 짐이 많다. 이처럼 모든 대상은 같은 짐에 주목하면 모두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말은 소이고, 소는 말이며, 만물은 하나로 결국 동등하다.

- ① 순자는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언어적 명칭이 선천적으로 고정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 ② <보기>에서 대상의 같은 짐에 주목하는 것은, 순자가 말하는 언어 개념을 사용하는 목적인 대상을 구별하여 귀천을 밝히는 것과 상반되는 것이다.
- ③ 말과 소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대상을 언어 개념을 통해 구별하는 것으로,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아니다.
- ④ 순자는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언어적 명칭은 선천적으로 고정된 의미가 없으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약속하여 해당 명칭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 대상의 이름, 즉 언어 개념이 되는 것이라 보았다. 또한 귀천을 밝히고 대상을 서로 구별하기 위해서 언어 개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대상 간의 분별을 통해 순자가 말하는 예가 이루어지며, 예는 사회 질서를 위한 사회적 규범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보기>에서는 여러 대상이 모두 동등하므로 '말은 소이고, 소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보기>에 대해 순자는 사회의 약속에 의해 정해진 언어 개념을 어지럽혀,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일 수 있다.
- ⑤ 순자는 사회 질서를 위해 사회적 규범이라 할 수 있는 예를 중시한 사상가로서, 예는 대상 간의 분별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1주차	출처: 2025 수능특강 97p
[4~8]	연계: 2025인예11

미국의 생물학자 윌슨은 하등 생물에서 고등 생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생물학을 목표로 사회 생물학을 주창하였다. 그는 사회 생물학을 모든 사회 행동의 생물학적 기초에 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하고, 사회를 유전학과 진화론에 기초하여 규명하지 않는다면 사회 현상을 올바르게 설명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그는 인간의 윤리 문제도 생물학적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와 윤리 등과 관련된 인간의 의식도 뇌의 시상 하부와 대뇌변연계에 있는 정서 중추에 의해 형성되고 제어되며, 유전자의 특성이 이기적이든 이타적이든 생명체가 지니는 특성은 결국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윌슨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인문학적 통찰이 ㉠ 부족하다는 비판도 존재하는데, ㉡ 이러한 비판을 방어할 수 있는 철학적 근거로서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이 제시되기도 한다.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자신의 철학에서 이념적 기초로 제시한 개념인 '현실적 존재자'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화이트헤드에 따르면, 현실적 존재자는 세계를 구성하는 궁극적 실체이다. 현실적 존재자는 다양한데, 신도, 허공 속에 ㉢ 부유하는 먼지도,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도 모두 현실적 존재자이다. 이들은 존재적 중요성이나 기능에는 차이가 있지만 현실적 존재자라는 면에서는 같다. 화이트헤드에게 있어 현실적 존재자란 과거를 주어진 조건으로 하여 미래를 새롭게 ㉣ 창출하는 과정 속의 실체이다. 그런 점에서 신도 먼지도 세포도 순수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실적 존재자는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이다.

화이트헤드는 우리의 현실 세계는 현실적 존재자들 사이의 관계망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유기체라고 하면서, 현실적 존재자들의 협력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강조하였다. 특히 그는 각각의 현실적 존재자들이 서로를 파악하는 과정인 '공재(togetherness)'와 통일성을 이루는 과정인 '합생(concrescence)'을 거쳐 새로운 현실적 존재자가 생성되며, 이 새로운 현실적 존재자는 다시 그러한 과정을 거쳐 또 다른 새로운 현실적 존재자를 생성하는 데 참여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때의 일련의 과정은 존재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이미 정해져 있는 질서를 따르는데, 하나의 현실적 존재자는 ㉤ 후속하는 새로운 현실적 존재

자에게는 주어진 조건, 즉 여건이 되고 또 그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고도 하였다. 나아가 화이트헤드는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현실적 존재자는 질서에 따라 변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전 단계로 되돌릴 수 없는 고유성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화이트헤드가 '현실적 존재자는 조각난 단편이 아니라 필떡거리는 경험의 방울'이라고 표현한 것은 현실적 존재자의 특성을 역설한 것이다.

그렇다면 화이트헤드의 철학이 생물학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일까? 화이트헤드는 현실적 존재자는 주체적으로는 소멸하지만 객체적으로는 불멸한다는 점을 피력하였다. 다시 말해, 현실적 존재자는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후속하는 새로운 현실적 존재에게 여건이 되기 때문에 객체적으로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현실적 존재자 내부에 미래가 잠재되어 있다는 말로도 표현되는데, 이는 화이트헤드의 철학과 생물학이 ㉥ 접하는 지점이 된다. 생명체는 유전자가 끊임없이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것, 즉 개체 유전을 통해 객체적 불멸성을 실현한다. 앞선 존재자와 후속하는 존재자로 이어지는 과정은 질서를 통해 이루어지고 공재와 합생을 거치며 생명체의 존재 목적이 달성된다. 화이트헤드는 생명체의 존재 목적은 자신의 세대를 마감한 후에 다음 세대로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주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목적을 생명 중추라고 칭하였다. 현실적 존재자로서 생명체는 개체 유전을 통해 생명 중추를 달성하고 미래의 존재자에게 결정적 여건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이 사회 생물학의 유전자 결정론을 지지하는 근거로 평가되는 이유를 잘 설명해 준다.

04.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윌슨은 사회 현상을 올바르게 설명하려면 생물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② 윌슨은 하등 생물과 고등 생물에 모두 적용되는 생물학을 정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③ 화이트헤드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세포들도 현실적 존재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④ 화이트헤드는 생명체의 중요 기관인 생명 증추를 통해 개체 유전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 ⑤ 화이트헤드는 생명체의 존재 목적은 후속하는 생명체에게 유전자를 물려주는 것이라고 보았다.

05.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생명체는 여러 현실적 존재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존재이다.
- ② 생명체는 생명을 본질로 하지만 결국 소멸하는 일시적 존재이다.
- ③ 생명체의 개체 유전은 생명체의 독립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 ④ 생명체의 현재 속에는 미래의 생명체에게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내재되어 있다.
- ⑤ 생명체의 특징은 생명체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의 무작위적 결합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04.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1문단에서 윌슨은 인간의 윤리 문제도 생물학적 검증을 거 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사회와 윤리 등과 관련된 인간의 의식도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였다.
- ② 1문단에서 윌슨은 하등 생물에서 고등 생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생물학을 목표로 사회 생물학을 주창하였다고 하였다.
- ③ 2문단에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도 모두 현실적 존재자라고 하였으므로 생명체를 구성하는 세포들은 현실적 존재자에 해당한다.
- ④ 4문단에서 화이트헤드는 생명체의 존재 목적을 생명 증추라고 칭하며 현실적 존재자로서 생명체는 개체 유전을 통해 생명 증추를 달성한다고 하였다. 화이트헤드가 생명체의 중요기관을 생명 증추라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생명 증추를 통해 개체 유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개체 유전을 통해 생명 증추를 달성하는 것이다.
- ⑤ 4문단에서 화이트헤드는 생명체의 존재 목적은 자신의 세대를 마감한 후에 다음 세대로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05.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2문단에서 화이트헤드는 신도 먼지도 세포도 모두 현실적 존재자인데, 이들은 존재적 중요성이나 기능에는 차이가 있지만 현실적 존재자라는 면에서 같다고 하였다. 생명체가 여러 현실적 존재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하지는 않았다.
- ② 4문단에서 화이트헤드는 현실적 존재자는 주체적으로는 소멸하지만 객체적으로는 불멸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현실적 존재자 내부에 미래가 잠재되어 있다고 말한 것이므로 생명체를 결국 소멸하는 일시적 존재로 인식한 것은 아니다.
- ③ 2문단에서 화이트헤드는 현실적 존재가 순수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하였으므로 개체 유전이 생명체의 독립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볼 수 없다.
- ④ 4문단에서 화이트헤드는 현실적 존재자는 사라진다고 할 지라도 후속하는 새로운 현실적 존재에게 여건이 되기 때문에 객체적으로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현실적 존재자의 내부에 미래가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개체 유전이라는 말로도 설명될 수 있는데, 개체 유전은 미래의 존재자에게 결정적 조건을 부과한다.
- ⑤ 3문단에서 화이트헤드는 현실적 존재자들은 존재의 목적을 위해 이미 정해진 질서를 따른다고 하였으므로 무작위적 결합을 통해 생명체가 형성된 것이 아니다

06. 윗글의 '화이트헤드'의 관점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A라는 현실적 존재자와 B라는 현실적 존재자가 일련의 과정을 거쳐 W_{AB} 라는 새로운 현실적 존재자를 형성하였다.

- ① W_{AB} 를 A와 B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② A와 B는 W_{AB} 의 여건이자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
- ③ W_{AB} 를 이루기 위해 A와 B는 서로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쳤다.
- ④ A와 B는 W_{AB} 내에 있는 현실적 존재자로서 W_{AB} 의 특성을 모두 포괄한다.
- ⑤ W_{AB} 는 A와 B가 상호작용의 관계 속에서 합생하는 과정을 거쳐 실재하게 된 것이다.

06. 윗글의 '화이트헤드'의 관점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A라는 현실적 존재자와 B라는 현실적 존재자가 일련의 과정을 거쳐 W_{AB} 라는 새로운 현실적 존재자를 형성하였다.

- ① 3문단에 따르면 현실적 존재자는 변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전 단계로 되돌릴 수 없는 고유성을 갖는다. 따라서 W_{AB} 를 A와 B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② 3문단에 따르면 하나의 현실적 존재자는 후속하는 새로운 현실적 존재자에게는 여건이 되고 또 그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A와 B는 W_{AB} 의 여건이자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
- ③ 3문단에 따르면, 각각의 현실적 존재자들이 서로를 파악하는 과정을 공재를 거쳐야 새로운 현실적 존재자가 생성된다. 따라서 W_{AB} 를 이루기 위해 A와 B는 서로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쳤다.
- ④ A와 B가 공재와 합생을 거쳐 새로운 현실적 존재자가 생성된다. W_{AB} 가 A와 B보다 이후에 생성된 것이므로 A와 B가 W_{AB} 의 특성을 모두 포괄하지는 않는다.
- ⑤ 2문단에서 화이트헤드는 현실적 존재자는 세계를 구성하는 궁극적 실재라고 하였다. 3문단에 따르면, 현실적 존재자들의 협력적이고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공재와 합생을 통해 새로운 현실적 존재자가 생성된다.

07. <보기>의 (가), (나)를 읽글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가) 데카르트는 실체가 존재하는 데는 자기 자신 이외의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실체의 존재는 실체가 놓여 있는 여건이나 환경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생명체는 생존에 적절한 여건이나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존재를 위협받게 된다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 환원주의는 복잡한 현상의 원인을 단순한 현상에서 찾는 것으로서 복잡한 구조와 속성이 부분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고 보는 신념이다. 환원주의에서는 생명체를 부분의 결합체로 설명하는데, 이는 부분의 속성을 전체도 그대로 가진다고 추론하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 환원주의는 생명체가 유전자의 복잡한 상호 작용을 통해 탄생하고 유지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 ① (가): 데카르트가 실체가 존재하는 데는 자기 자신 이외의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본 것은, 현실 세계를 현실적 존재자들 사이의 관계망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하나의 유기체라고 설명하는 화이트헤드의 관점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가): 생명체는 적절한 여건이나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존재를 위협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화이트헤드와 마찬가지로 현실적 존재자의 주체적 소멸을 줄이는 것이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나): 환원주의에서 복잡한 구조와 속성이 부분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고 본 것은, 현실적 존재자를 '펼떡거리는 경험의 방울'이라고 설명하며 현실적 존재자를 동태적 존재로서 인식한 화이트헤드의 관점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나): 생명체를 부분의 결합으로 보고 생명체를 이루는 부분의 속성을 생명체가 그대로 가진다고 추론하는 것은, 현실적 존재자는 과거를 여건으로 하여 미래를 새롭게 창출한다는 화이트헤드의 시각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나) : 환원주의가 생명체의 여러 부분은 복잡한 상호 작용을 통해 유지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은,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존재도 결국에는 현실적 존재자라는 면에서 동일하다는 화이트헤드의 주장을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07. <보기>의 (가), (나)를 읽글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가) 데카르트는 실체가 존재하는 데는 자기 자신 이외의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실체의 존재는 실체가 놓여 있는 여건이나 환경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생명체는 생존에 적절한 여건이나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존재를 위협받게 된다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 환원주의는 복잡한 현상의 원인을 단순한 현상에서 찾는 것으로서 복잡한 구조와 속성이 부분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고 보는 신념이다. 환원주의에서는 생명체를 부분의 결합체로 설명하는데, 이는 부분의 속성을 전체도 그대로 가진다고 추론하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 환원주의는 생명체가 유전자의 복잡한 상호 작용을 통해 탄생하고 유지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 ① 실체가 존재하는 데는 자기 자신 이외의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데카르트의 관점은 실체가 놓여 있는 여건이나 환경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실체 자체만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 세계를 현실적 존재자들 사이의 관계망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하나의 유기체라고 설명하는 화이트헤드의 관점과 차이가 있다.
- ② 데카르트의 관점에 대해 생명체는 생존에 적절한 여건이나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존재를 위협받게 된다고 반문할 수 있다. 이러한 반문은 여건이나 환경에 대해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기반한다. 이러한 반문이 현실적 존재자의 주체적 소멸을 줄이는 것이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아니며, 화이트헤드도 현실적 존재자의 주체적 소멸을 줄여야 한다고 하지 않았다.
- ③ 환원주의는 복잡한 현상의 원인을 단순한 현상에서 찾는 것으로서 복잡한 구조와 속성이 부분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부분을 고정적인 것으로 인식한 것이다. 그런데 화이트헤드는 '현실적 존재자는 조각난 단편이 아니라 펼떡거리는 경험의 방울'이라고 하면서 현실적 존재자의 동태적 속성, 즉 현실적 존재자가 과정 속에서 변화하는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 ④ 생명체를 부분의 결합으로 보고 생명체를 이루는 부분의 속성을 생명체가 그대로 가진다고 추론하는 것은 부분의 합이 전체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화이트헤드는 현실적 존재자는 과거를 여건으로 하여 미래를 새롭게 창출하는 과정 속의 실체라고 말한다. 과거를 여건으로 하여 새로운 현실적 존재자가 실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부분의 합이 전체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환원주의적 관점과 다르다.
- ⑤ 환원주의가 생명체의 여러 부분은 복잡한 상호 작용을 통해 유지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은, 현실적 존재자들의 협력적이고 유기적인 의존 관계를 강조하는 화이트헤드의 주장과 유사하다.

08.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모자란다는
- ② ㉡ : 떠다니는
- ③ ㉢ : 찾아내는
- ④ ㉣ : 뒤잇는
- ⑤ ㉤ : 맞닿는

08.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부족하다'는 필요한 양이나 기준에 미치지 못해 충분하지 아니하다.'의 뜻으로, '모자라다'와 바꿔 쓸 수 있다
- ② ㉡ : '부유하다'는 '물 위나 물속, 또는 공기 중에 떠다니다.'의 뜻으로, '떠다니다'와 바꿔 쓸 수 있다.
- ③ ㉢ : '창출하다'는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생각하여 지어내거나 만들어내다.'라는 뜻으로, '찾기 어려운 사람이나 사물을 찾아서 드러내다.'의 의미인 '찾아내다'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 ④ ㉣ : '후속하다'는 '뒤를 이어 계속하다.'의 뜻으로, '뒤잇다'와 바꿔 쓸 수 있다.
- ⑤ ㉤ : '접하다'는 '이어서 닿다.'의 뜻으로, '맞닿다'와 바꿔 쓸 수 있다.

1주차	출처: 2008 수능 연계: 2025개념08
[9~11]	

중세부터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기까지 생리학 분야의 절대적 권위는 2세기 경 그리스 의학을 집대성한 갈레노스에게 있었다. 갈레노스에 따르면, 정맥피는 간에서 생성되어 정맥을 타고 온몸으로 영양분을 전달하면서 소모된다. 정맥피 중 일부는 심실벽인 격막의 구멍을 통과하여 우심실에서 좌심실로 이동한 후, 거기에서 공기의 통로인 폐정맥을 통해 폐에서 유입된 공기와 만나 동맥피가 된다. 그 다음에 동맥피는 동맥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 생기를 전해 주면서 소모된다. 이 이론은 피의 전달 경로에 대한 근본적인 오류를 포함하고 있었으나, 갈레노스의 포괄적인 생리학 체계의 일부로서 권위 있게 받아들여졌다. 중세를 거치면서 인체 해부가 가능했지만, 그러한 오류들은 고대의 권위를 추종하는 학문 풍토 때문에 시정되지 않았다.

16세기에 이르러 베살리우스는 해부를 통해 격막에 구멍이 없으며, 폐정맥이 공기가 아닌 피의 통로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후 심장에서 나간 피가 폐를 통과한 후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폐순환이 발견되자 갈레노스의 피의 소모 이론은 도전에 직면했다. 그러나 당시의 의학자들은 갈레노스의 이론에 얽매어 있었으므로 격막 구멍이 없다는 사실로 인해 생긴 문제, 즉 우심실에서 좌심실로 피가 옮겨 갈 수 없는 문제를 폐순환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판도를 바꾼 사람은 하비였다. 그는 생리학에 근대적인 정량적 방법을 도입했다. 그는 심장의 용적을 측정하여 심장이 밀어내는 피의 양을 추정했다. 그 결과, 심장에서 나가는 동맥피의 양은 섭취되는 음식물의 양보다 훨씬 많았다. 먹은 음식물보다 더 많은 양의 피가 만들어질 수 없으므로 하비는 피가 순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했다. 하비는 끈으로 자신의 팔을 묶어 동맥과 정맥을 함께 압박하였다. 피의 흐름이 멈추자 피가 통하지 않는 손은 차가워졌다. 동맥을 차단했던 끈을 약간 늦추어 동맥피만 흐르게 해 주자 손은 이내 생기를 회복했고, 잠시 후 여전히 끈에 압박되어 있던 정맥의 말단 쪽 혈관이 부풀어 올랐다. 끈을 마저 풀어 주자 부풀어 올랐던 정맥은 이내 가라앉았다. 이로써 동맥으로 나갔던 피가 손을 돌아 정맥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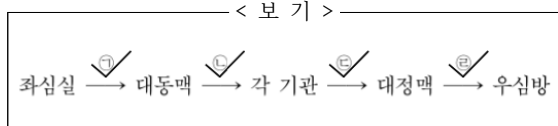
이 실험을 근거로 하비는 1628년에 '좌심실→대동맥→각 기관→대정맥→우심방→우심실→폐동맥→폐→폐정맥→좌심방→좌심실'로 이어지는 피의 순환 경로를 제시했다.

반대자들은 해부를 통해 동맥과 정맥의 말단을 연결하는 통로를 찾을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얼마 후, 말피기가 새로 발명된 현미경으로 모세혈관을 발견하면서 피의 순환 이론은 널리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폐와 그 밖의 기관들을 피가 따로 순환해야 하는 이유를 포함하여 다양한 인체 기능을 설명하는 새로운 생리학의 구축이 시작되었다.

09. 위 글로 보아 '피의 순환 이론'의 성립이나 수용에 기여하지 않은 것은?

- ① 새로운 생리학의 구축
- ② 과학적 발견들과의 부합
- ③ 정량적 사고방식의 채택
- ④ 새로운 관찰 도구의 도입
- ⑤ 실험적 방법의 적극적 활용

10. <보기>는 '하비'가 제시한 피의 순환 경로의 일부이다. '하비'가 끈 실험에서 차단했던 위치를 바르게 지적한 것은? [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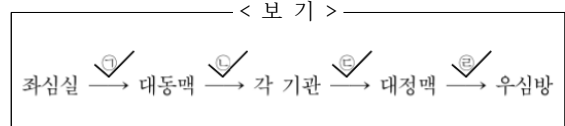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09. 위 글로 보아 '피의 순환 이론'의 성립이나 수용에 기여하지 않은 것은?

- ① 새로운 생리학의 구축: 1문단에서 '절대적 권위'라고 언급했고, 이를 하비가 극복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지문이므로, 새로운 생리학은 결과로, '피의 순환 이론'의 성립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
- ② 과학적 발견들과의 부합: 폐순환, 음식물의 양과의 비교, 혈류 순환 실험 등과 부합하였다.
- ③ 정량적 사고방식의 채택: 심장이 밀어내는 피의 양을 음식물 양과 '정량적'으로 비교하였다.
- ④ 새로운 관찰 도구의 도입: 말피기가 '현미경'이라는 새로운 관찰 도구를 활용하여 모세혈관을 관찰하면서 기여하였다.
- ⑤ 실험적 방법의 적극적 활용: 팔을 묶는 실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해부 역시 실험적 방법으로 볼 수 있다.

10. <보기>는 '하비'가 제시한 피의 순환 경로의 일부이다. '하비'가 끈 실험에서 차단했던 위치를 바르게 지적한 것은? [1점]



- ③ ㉡, ㉣: 3문단을 보면, 동맥과 정맥을 동시에 압박하였다고 했고, 손의 온도만 감소한 것으로 보아, 각 기관이 아닌 하나의 기관에만 영향을 미쳤는데, 이를 통해 대동맥과 대정맥을 막은 것이 아니라, 기관(손)과 대동맥, 대정맥 사이에서 막은 것으로 볼 수 있다.

11. <보기>의 관점에 따라 위 글의 사례를 해석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성공적인 과학 이론은 '패러다임'이 되어 후속하는 과학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과학자들은 패러다임에서 연구의 방법, 연구 주제 등을 발견한다. 이러한 '정상 과학' 활동에서 때때로 기존의 패러다임과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과학적 발견인 '변칙 사례'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변칙 사례들이 패러다임을 당장에 '무효화'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변칙 사례가 누적되면서 위기가 도래한다. 이때 새로운 과학 이론이 등장하여 기존의 패러다임과 경쟁을 벌인다. 그러다가 어떤 이유로 새로운 이론이 과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지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는데, 이것이 '과학 혁명'이다.

- ① 갈레노스의 이론은 오랫동안 널리 받아들여진 이론이므로 '패러다임'이었겠군.
- ② 갈레노스에 대한 강력한 추종이 있었던 중세의 생리학은 '정상 과학'이었겠군.
- ③ 폐정맥에서 피가 발견된 것은 갈레노스의 이론과 합치되지 않으므로 '변칙 사례'에 속하겠군.
- ④ **폐순환의 발견은 경험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갈레노스의 이론을 '무효화'하지 못했겠군.**
- ⑤ 하비의 순환 이론이 갈레노스의 이론을 대신하여 수용된 것이 '과학 혁명'이었겠군.

11. <보기>의 관점에 따라 위 글의 사례를 해석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성공적인 과학 이론은 '패러다임'이 되어 후속하는 과학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과학자들은 패러다임에서 연구의 방법, 연구 주제 등을 발견한다. 이러한 '정상 과학' 활동에서 때때로 기존의 패러다임과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과학적 발견인 '변칙 사례'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변칙 사례들이 패러다임을 당장에 '무효화'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변칙 사례가 누적되면서 위기가 도래한다. 이때 새로운 과학 이론이 등장하여 기존의 패러다임과 경쟁을 벌인다. 그러다가 어떤 이유로 새로운 이론이 과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지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는데, 이것이 '과학 혁명'이다.

- ① 갈레노스의 이론은 오랫동안 널리 받아들여진 이론이므로 '패러다임'이었겠군: 2세기 이전 과거의 입장에서 본다면 갈레노스의 이론은 '패러다임'이 되어 절대적 권위가 되었다. 이후 변칙사례로 인해 과학혁명이 발생한 것이다.
- ② 갈레노스에 대한 강력한 추종이 있었던 중세의 생리학은 '정상 과학'이었겠군: 당시에는 갈레노스의 학문이 '정상 과학'으로, 절대적 권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③ 폐정맥에서 피가 발견된 것은 갈레노스의 이론과 합치되지 않으므로 '변칙 사례'에 속하겠군: 과학혁명으로 폐기되기 전, 쌓였던 변칙사례에 속한다. 이러한 변칙사례로 인해 새로운 순환 모델이 패러다임이 된 것이다.
- ④ **폐순환의 발견은 경험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갈레노스의 이론을 '무효화'하지 못했겠군: 당시 의학자들이 갈레노스의 이론에 얽매어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무효화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폐순환의 발견은 경험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피의 통로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를 통해 확정적으로 발견한 것을 알 수 있다.**
- ⑤ 하비의 순환 이론이 갈레노스의 이론을 대신하여 수용된 것이 '과학 혁명'이었겠군: 갈레노스의 이론을 폐기하게 된 계기로, 과학혁명으로 볼 수 있다.

1주차	출처: 2014LEET 8~10
[12~14]	연계: 2025유형02나

2014 LEET	지문분석
<p>쾌락주의는 모든 쾌락이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으며 쾌락의 증가와 고통의 감소를 통해 최대의 쾌락을 산출하는 행위를 올바른 것으로 간주하는 윤리설이다. 쾌락주의에 따르면 쾌락만이 내재적 가치를 지니며, 모든 것은 이러한 쾌락을 기준으로 가치 평가되어야 한다. 쾌락주의는 고대의 에피쿠로스에 의해서는 개인의 쾌락을 중시하는 이기적 쾌락주의로, 근대의 벤담과 밀에 의해서는 사회 전체의 쾌락을 중시하는 ㉠ 쾌락주의적 공리주의로 체계화되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int: 쾌락주의 주장으로는 쾌락이 “그 자체로서” 쾌락만이 내재적 가치가 있다. ✓ Point: 에피쿠로스의 이기적 쾌락주의 -> 벤담과 밀의 쾌락주의적 공리주의 ✓ Flow: 에피쿠로스의 이기적 쾌락주의와 벤담/밀의 쾌락주의적 공리주의가 설명될 지문으로 발전되는 과정이거나 비교하는 관계인지, 그리고 무조건 이 둘을 체계화하며 대조해야 한다. ✓ Tip: 1문단은 항상 중요하며, 정의가 나와있는 경우, 어휘와 조사는 무조건 잘 확인해야 한다. ‘쾌락주의’에서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오로지 쾌락만이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는 부분도 중요하다. ✓ Tip: 긴 문장의 이해 “쾌락주의는 고대의 에피쿠로스에 의해서는 개인의 쾌락을 중시하는 이기적 쾌락주의로, 근대의 벤담과 밀에 의해서는 사회 전체의 쾌락을 중시하는 쾌락주의적 공리주의로 체계화되었다.” => 쾌락주의는 (에피쿠로스 - 개인의 쾌락 - 이기적 쾌락주의)와 (근대 - 벤담/밀 - 사회전체의 쾌락 - 쾌락주의적 공리주의)로 나눌 수 있으며, ‘둘다 쾌락주의’이다. 	
<p>그런데 쾌락주의자는 단기적이고 말초적인 쾌락만을 추구함으로써 결국 고통에 빠지게 된다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쾌락주의적 삶을 순간적이고 감각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방탕한 삶과 동일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쾌락주의는 일시적인 쾌락의 극대화가 아니라 장기적인 쾌락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므로 단기적, 말초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성취가 장기적으로 더 큰 쾌락을 가져다준다면 쾌락주의자는 단기적 쾌락보다는 사회적 성취를 우선적으로 추구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int: 쾌락주의에는 ‘단기적이고 말초적인 쾌락만’을 추구한다는 오해가 있다. ✓ Point: 장기적인 쾌락이 더 클 수도 있다. ✓ Flow: 1문단 마지막에 두 쾌락주의를 대조하여 예상할 수 있는데, 다른 내용으로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기존 주제인 두 쾌락주의가 주제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언젠간 나올 것이다. ✓ Tip: 쾌락주의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으로 예시가 많다. 빠른 독해를 위해서는 첫 문장 “그런데 쾌락주의자는 단기적이고 말초적인 쾌락만을 추구함으로써 결국 고통에 빠지게 된다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만 봐도 이후의 내용을 상식선으로 판단 가능하다. 훑으면서 시간을 아낄 수 있다. 	
<p>또한 쾌락주의는 쾌락 이외의 것은 모두 무가치한 것으로 본다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쾌락주의가 쾌락만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는 쾌락 말고도 가치 있는 것들이 있으며, 심지어 고통조차도 가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발이 불구덩이에 빠져서 통증을 느껴 곧바로 발을 빼낸 상황을 생각해 보자. 이때의 고통은 분명히 좋은 것임에 틀림없다. 만약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면, 불구덩이에 빠진 발을 꺼낼 생각을 하지 못해서 큰 부상을 당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때 고통이 가치 있다는 것은 도구적인 의미에서 그런 것이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int: 쾌락주의에는 ‘쾌락만 가치가 있다’라는 오해가 있다. ✓ Point: ‘도구적인 의미’의 가치가 있는 것은 있어도, 목적 그 자체의 가치가 있는 것은 쾌락뿐이다. ✓ Flow: 1문단 마지막의 떡밥이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 2, 3문단을 묶어서 쾌락주의의 의견을 디테일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 Tip: 2문단과 비슷하게, 도입부 부분만 읽고 상식선에서 판단가능하다면 빠르게 넘어갈 수 있어야 한다. ✓ Tip: 새로운 ‘비교’하는 개념이 나왔다. ‘도구’와 ‘목적’의 차이가 있는데, ‘둘 다 가치는 있다’, ‘목적에는 쾌락뿐’이라는 포인트가 있다. 	

쾌락주의는 고통을 도구가 아닌 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본다. 금욕주의자가 기꺼이 감내하는 고통조차도 종교적·도덕적 성취와 만족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인 것이지 고통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세속적 금욕주의자들은 재화나 명예와 같은 사회적 성취를 위해 당장의 쾌락을 포기하며, 종교적 금욕주의자들은 내세의 성취를 위해 현세의 쾌락을 포기하는데, 그것이 사회적 성취이든 내세적 성취이든 간에 모두 광의의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 ✓ Point: 고통은 목적이 될 수 없다.
- ✓ Point: 통상적으로 '고통을 감내하는 금욕주의자' 역시 장기적인 '쾌락'인 성취와 만족을 위한 것이다.
- ✓ Flow: 3문단에 부가적인 설명이다. 고통과 쾌락을 비교하며, 고통이 목적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사례를 미리 반박한 것이다. 1문단의 띄엄을 기억해야 한다.
- ✓ Flow: 2문단에서 언급되었던 '도구'와 '목적'의 대립을 지속하고 있다. "목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쾌락만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 ✓ Tip: 계속 쾌락주의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1문단의 두 쾌락주의의 비교와 같은 큰 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 ✓ Tip: 긴 문장의 이해 "대부분의 세속적 금욕주의자들은 재화나 명예와 같은 사회적 성취를 위해 당장의 쾌락을 포기하며, 종교적 금욕주의자들은 내세의 성취를 위해 현세의 쾌락을 포기하는데, 그것이 사회적 성취이든 내세적 성취이든 간에 모두 광의의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 ==> (세속적 금욕주의자: 사회적 성취(부/명예)로 당장의 쾌락을 포기)
- ==> (종교적 금욕주의자: 내세의 성취로 당장의 쾌락을 포기)
- ==> 모두 '광의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다.

쾌락주의가 여러 오해로 인해 부당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쾌락주의가 어떠한 비판으로부터도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쾌락주의는 쾌락의 정의나 쾌락의 계산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갖고 있다. 쾌락의 원천은 다양한데, 과연 서로 다른 쾌락을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가? 가령 식욕의 충족에서 비롯된 쾌락과 사회적 명예의 획득에서 비롯된 쾌락은 같은 것인가? 이에 대해 벤담은 이 쾌락들이 질적으로 동일하며 양적으로 다를 뿐이라고 대답함으로써 쾌락주의의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었으나, 저급한 돼지의 쾌락과 고차원적인 인간의 쾌락을 동일시하여 결국 돼지와 인간을 동등한 존재로 간주하였다는 점에서 비쾌락주의자로부터 '돼지의 철학'이라고 비판받았다. 밀은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인간이 더 낫고, 만족한 바보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고 주장하면서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했다. 그런데 이 입장을 취하게 되면, 이질적인 쾌락을 어떻게 서로 비교할 수 있는가 하는 계산의 문제가 발생한다. 밀은 이질적인 쾌락이라고 해도 양자를 모두 경험한 다수의 사람이 선호하는 쾌락을 고급 쾌락이라고 하면서 저급 쾌락과 고급 쾌락을 구분하였다. 인간은 자유롭고 존엄한 삶을 추구하는 존재인데, 이러한 자유와 존엄성의 실현에 기여하는 고급 쾌락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후대의 다른 쾌락주의자들은 ㉠ 밀이 쾌락주의의 입장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하기도 하였다.

- ✓ Point: 쾌락주의의 다양한 비판, 1) 쾌락의 정의, 2) 쾌락의 계산
- ✓ Point: 쾌락의 정의에서의 비판으로 '음식의 쾌락과 사회의 쾌락은 같은 것인가?'라는 비판이 있으나, 벤담은 이에 '질적으로 같고, 양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며 '저급한 돼지의 쾌락 vs 고차원적인 인간의 쾌락'의 비판에 약하다.
- ✓ Point: '쾌락이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한 밀은 '질적으로 다른 쾌락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라는 비판이 있다.
- ✓ Flow: 마지막 문단으로, 쾌락주의에 대한 '오해'가 아닌 '비판'을 설명하고 있으며, 2, 3, 4문단의 오해가 아닌, 비판을 설명하고 있다. '쾌락의 정의', '쾌락의 계산'의 두 가지 비판이 있고, 학자별로 이 두 비판에 대해 대답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 Flow: 1문단의 두 쾌락주의에 대한 띄엄이 반만 풀렸다. 에피쿠로스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문제에서 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 좋다.
- ✓ Flow: 1문단의 벤담/밀의 '쾌락주의적 공리주의'가 무엇인지 기억하면 5문단을 매우 디테일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에 대한 것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사회 쾌락의 총합'을 어떻게 계산할까?라는 질문만 던져도 5문단의 의미를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두 학자의 대답도 다르다. 아래 Point에서 부연설명 참고
- ✓ Tip: 긴 문장의 이해 "이에 대해 벤담은 이 쾌락들이 질적으로 동일하며 양적으로 다를 뿐이라고 대답함으로써 쾌락주의의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었으나, 저급한 돼지의 쾌락과 고차원적인 인간의 쾌락을 동일시하여 결국 돼지와 인간을 동등한 존재로 간주하였다는 점에서 비쾌락주의자로부터 '돼지의 철학'이라고 비판받았다."
- ==> "식욕의 충족 vs 사회적 명예의 획득"
- ==> 벤담: 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단순히 합해서 비교할 수 있다.
- ==> 질적으로 동일하다면, 동물(돼지)와 인간의 쾌락도 동일한다? 이에 벤담은 동일하다고 하였다.
- ✓ Point: 불친절한 해설의 이해: "밀이 쾌락주의의 입장을 저버린 이유"
- ==> 저급쾌락과 고급쾌락이 나뉜다. 즉, (쾌락 + 고급/저급)으로 도식화할 수 있다.
- ==> 쾌락주의의 정의 (쾌락만이 내재적 가치가 있다, 쾌락으로만 평가해야 한다)에 벗어난 척도 "고급/저급"이 들어가서 모순이다.

2014 LEET	#8
<p>쾌락주의는 ② 모든 쾌락이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으며 쾌락의 증가와 고통의 감소를 통해 ⑤ 최대의 쾌락을 산출하는 행위를 올바른 것으로 간주하는 윤리설이다. 쾌락주의에 따르면 ② 쾌락만이 내재적 가치를 지니며, 모든 것은 이러한 쾌락을 기준으로 가치 평가되어야 한다. 쾌락주의는 고대의 에피쿠로스에 의해서는 개인의 쾌락을 중시하는 이기적 쾌락주의로, 근대의 벤담과 밀에 의해서는 사회 전체의 쾌락을 중시하는 ① 쾌락주의적 공리주의로 체계화되었다.</p> <p>그런데 쾌락주의자는 단기적이고 말초적인 쾌락만을 추구함으로써 결국 고통에 빠지게 된다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쾌락주의적 삶을 순간적이고 감각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방탕한 삶과 동일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쾌락주의는 일시적인 쾌락의 극대화가 아니라 장기적인 쾌락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므로 ② 단기적, 말초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성취가 장기적으로 더 큰 쾌락을 가져다준다면 쾌락주의자는 단기적 쾌락보다는 사회적 성취를 우선적으로 추구한다.</p> <p>또한 쾌락주의는 쾌락 이외의 것은 모두 무가치한 것으로 본다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쾌락주의가 쾌락만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는 쾌락 말고도 가치 있는 것들이 있으며, 심지어 고통조차도 가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발이 불구덩이에 빠져서 통증을 느껴 곧바로 발을 빼낸 상황을 생각해 보자. 이때의 고통은 분명히 좋은 것임에 틀림없다. 만약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면, 불구덩이에 빠진 발을 꺼낼 생각을 하지 못해서 큰 부상을 당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때 ③ 고통이 가치 있다는 것은 도구적인 의미에서 그런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p> <p>쾌락주의는 ① 고통을 도구가 아닌 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본다. ④ 금욕주의자가 기꺼이 감내하는 고통조차도 종교적, 도덕적 성취와 만족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인 것이지 ① 고통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④ 세속적 금욕주의자들은 재화나 명예와 같은 사회적 성취를 위해 당장의 쾌락을 포기하며, 종교적 금욕주의자들은 내세의 성취를 위해 현재의 쾌락을 포기하는데, 그것이 사회적 성취이든 내세적 성취이든 간에 모두 광의의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p> <p>쾌락주의가 여러 오해로 인해 부당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쾌락주의가 어떠한 비판으로부터도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쾌락주의는 쾌락의 정의나 쾌락의 계산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갖고 있다. 쾌락의 원천은 다양한데, 과연 서로 다른 쾌락을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가? 가령 식욕의 충족에서 비롯된 쾌락과 사회적 명예의 획득에서 비롯된 쾌락은 같은 것인가? 이에 대해 벤담은 이 쾌락들이 질적으로 동일하며 양적으로 다를 뿐이라고 대답함으로써 쾌락주의의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었으나, 저급한 돼지의 쾌락과 고차원적인 인간의 쾌락을 동일시하여 결국 돼지와 인간을 동등한 존재로 간주하였다는 점에서 비쾌락주의자로부터 '돼지의 철학'이라고 비판받았다. 밀은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인간이 더 낫고, 만족한 바보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고 주장하면서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했다. 그런데 이 입장을 취하게 되면, 이질적인 쾌락을 어떻게 서로 비교할 수 있는가 하는 계산의 문제가 발생한다. 밀은 이질적인 쾌락이라고 해도 양자를 모두 경험한 다수의 사람이 선호하는 쾌락을 고급 쾌락이라고 하면서 저급 쾌락과 고급 쾌락을 구분하였다. 인간은 자유롭고 존엄한 삶을 추구하는 존재인데, 이러한 자유와 존엄성의 실현에 기여하는 고급 쾌락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후대의 다른 쾌락주의자들은 ④ 밀이 쾌락주의의 입장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하기도 하였다.</p>	
<p>12. 위 글에 나타난 쾌락주의의 입장이 아닌 것은?</p> <p>① 고통은 그 자체로서 목적적 가치를 지닌 것은 아니다. ② 단기적이고 말초적인 쾌락은 내재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 ③ 쾌락이 아닌 다른 것도 도구적 의미에서 가치를 지닐 수 있다. ④ 금욕주의자가 고통을 감내하는 것도 결국은 쾌락을 위한 것이다. ⑤ 두 행위 중 결과적으로 더 큰 쾌락을 산출하는 행위가 옳은 것이다.</p>	
<p>[실전]</p> <p>①③④ 쾌락만이 목적 혹은 내재적 가치가 될 수 있다. ⑤ 더 큰 쾌락을 산출하는 행위가 옳다. ✓ 지문의 핵심 개념으로 판단 후, 일부만 지문을 확인해서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② 2문단으로 헛갈릴 수 있지만, 1, 3, 4, 5를 판단 한 후 1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p>	<p>[정석]</p> <p>① 고통은 도구적인 의미에서 가치가 있다. ② '모든' 쾌락에는 내재적 가치가 있다. ③ 고통은 도구적인 의미에서 가치가 있다. ④ 세속적이거나, 종교적인 금욕주의자도 더 궁극의 쾌락을 위한 것이다. ⑤ 쾌락주의는 더 큰 쾌락을 지향한다.</p>

2014 LEET	#9
<p>쾌락주의는 모든 쾌락이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으며 쾌락의 증가와 고통의 감소를 통해 최대의 쾌락을 산출하는 행위를 올바른 것으로 간주하는 윤리설이다. 쾌락주의에 따르면 쾌락만이 내재적 가치를 지니며, 모든 것은 이러한 쾌락을 기준으로 가치 평가되어야 한다. 쾌락주의는 고대의 에피쿠로스에 의해서는 개인의 쾌락을 중시하는 이기적 쾌락주의로, 근대의 벤담과 밀에 의해서는 ①②③④⑤ 사회 전체의 쾌락을 중시하는 ㉠ 쾌락주의적 공리주의로 체계화되었다.</p> <p>그런데 쾌락주의자는 단기적이고 말초적인 쾌락만을 추구함으로써 결국 고통에 빠지게 된다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쾌락주의적 삶을 순간적이고 감각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방탕한 삶과 동일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쾌락주의는 일시적인 쾌락의 극대화가 아니라 장기적인 쾌락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므로 단기적, 말초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성취가 장기적으로 더 큰 쾌락을 가져다준다면 쾌락주의자는 단기적 쾌락보다는 사회적 성취를 우선적으로 추구한다.</p> <p>또한 쾌락주의는 쾌락 이외의 것은 모두 무가치한 것으로 본다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쾌락주의가 쾌락만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는 쾌락 말고도 가치 있는 것들이 있으며, 심지어 고통조차도 가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발이 불구덩이에 빠져서 통증을 느껴 곧바로 발을 빼낸 상황을 생각해 보자. 이때의 고통은 분명히 좋은 것임에 틀림없다. 만약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면, 불구덩이에 빠진 발을 꺼낼 생각을 하지 못해서 큰 부상을 당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때 고통이 가치 있다는 것은 도구적인 의미에서 그런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p> <p>쾌락주의는 고통을 도구가 아닌 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본다. 금욕주의자가 기꺼이 감내하는 고통조차도 종교적·도덕적 성취와 만족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인 것이지 고통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세속적 금욕주의자들은 재화나 명예와 같은 사회적 성취를 위해 당장의 쾌락을 포기하며, 종교적 금욕주의자들은 내세의 성취를 위해 현세의 쾌락을 포기하는데, 그것이 사회적 성취든 내세적 성취든지 간에 모두 광의의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p> <p>쾌락주의가 여러 오해로 인해 부당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쾌락주의가 어떠한 비판으로부터도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쾌락주의는 쾌락의 정의나 쾌락의 계산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갖고 있다. 쾌락의 원천은 다양한데, 과연 서로 다른 쾌락을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가? 가령 식욕의 충족에서 비롯된 쾌락과 사회적 명예의 획득에서 비롯된 쾌락은 같은 것인가? 이에 대해 벤담은 이 쾌락들이 질적으로 동일하며 양적으로 다를 뿐이라고 대답함으로써 쾌락주의의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었으나, 저급한 쾌지와 쾌락과 고차원적인 인간의 쾌락을 동일시하여 결국 쾌지와 인간을 동등한 존재로 간주하였다는 점에서 비쾌락주의자로부터 '쾌지의 철학'이라고 비판받았다. 밀은 만족한 쾌지보다 불만족한 인간이 더 낫고, 만족한 바보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고 주장하면서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했다. 그런데 이 입장을 취하게 되면, 이질적인 쾌락을 어떻게 서로 비교할 수 있는가 하는 계산의 문제가 발생한다. 밀은 이질적인 쾌락이라고 해도 양자를 모두 경험한 다수의 사람이 선호하는 쾌락을 고급 쾌락이라고 하면서 저급 쾌락과 고급 쾌락을 구분하였다. 인간은 자유롭고 존엄한 삶을 추구하는 존재인데, 이러한 자유와 존엄성의 실현에 기여하는 고급 쾌락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후대의 다른 쾌락주의자들은 ㉠ 밀이 쾌락주의의 입장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하기도 하였다.</p>	
<p>13. ㉠의 입장에서 <보기>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p>	
<p style="text-align: center;">< 보 기 ></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쾌락주의는 사디스트가 쾌락을 얻기 위해 가학적 행위를 하는 것도 옳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p> </div> <p>① 사디스트의 가학적 행위는 그 동기가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② 사디스트의 가학적 행위는 그 자신의 쾌락을 증진해 주기 때문에 옳은 것이다. ③ 사디스트의 가학적 행위는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그런 것이다. ④ 사디스트가 가학적 행위로 얻는 쾌락은 타인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다. ⑤ 사디스트가 가학적 행위로 얻는 쾌락보다 그로 인한 희생자의 고통이 더 클 경우에 가학적 행위는 그런 것이다.</p>	
<p>[실전]</p> <p>①③④ 쾌락주의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② 이기적 쾌락주의와 쾌락주의적 공리주의를 비교하는 것이다. ⑤ 사회적 통념상 고통이 쾌락의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이해한다면 쾌락의 총합이 음수가 될 수 있다.</p>	<p>[정석]</p> <p>① 쾌락주의의 동기는 쾌락으로 오히려 '이기적 쾌락주의'에 따르면 옳은 것이다. ②도 동일하게 '이기적 쾌락주의'라면 옳지만, '쾌락주의적 공리주의'라서 틀린 선지다. ③ 피해의 발생 여부로 '인해' 그런 것이다. ④ 쾌락을 얻으므로,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 ⑤ 사회 전체의 쾌락을 계산해서 음수가 나온다.</p>

2014 LEET	#10
<p>쾌락주의는 ② 모든 쾌락이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으며 쾌락의 증가와 고통의 감소를 통해 최대의 쾌락을 산출하는 행위를 올바른 것으로 간주하는 윤리설이다. 쾌락주의에 따르면 쾌락만이 내재적 가치를 지니며, 모든 것은 이러한 쾌락을 기준으로 가치 평가되어야 한다. 쾌락주의는 고대의 에피쿠로스에 의해서는 개인의 쾌락을 중시하는 이기적 쾌락주의로, 근대의 벤담과 밀에 의해서는 ① 사회 전체의 쾌락을 중시하는 ① 쾌락주의적 공리주의로 체계화되었다.</p> <p>그런데 쾌락주의자는 단기적이고 말초적인 쾌락만을 추구함으로써 결국 고통에 빠지게 된다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쾌락주의적 삶을 순간적이고 감각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방탕한 삶과 동일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쾌락주의는 일시적인 쾌락의 극대화가 아니라 장기적인 쾌락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므로 단기적, 말초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성취가 장기적으로 더 큰 쾌락을 가져다준다면 쾌락주의자는 단기적 쾌락보다는 사회적 성취를 우선적으로 추구한다.</p> <p>또한 쾌락주의는 쾌락 이외의 것은 모두 무가치한 것으로 본다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쾌락주의가 쾌락만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는 쾌락 말고도 가치 있는 것들이 있으며, 심지어 고통조차도 가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발이 불구덩이에 빠져서 통증을 느껴 곧바로 발을 빼낸 상황을 생각해 보자. 이때의 고통은 분명히 좋은 것임에 틀림없다. 만약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면, 불구덩이에 빠진 발을 꺼낼 생각을 하지 못해서 큰 부상을 당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때 고통이 가치 있다는 것은 도구적인 의미에서 그런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란 의미는 아니다.</p> <p>쾌락주의는 고통을 도구가 아닌 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본다. 금욕주의자가 기꺼이 감내하는 고통조차도 종교적·도덕적 성취와 만족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인 것이지 고통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세속적 금욕주의자들은 재화나 명예와 같은 사회적 성취를 위해 당장의 쾌락을 포기하며, 종교적 금욕주의자들은 내세의 성취를 위해 현재의 쾌락을 포기하는데, 그것이 사회적 성취든 내세적 성취든지 간에 모두 광의의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p> <p>쾌락주의가 여러 오해로 인해 부당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쾌락주의가 어떠한 비판으로부터도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쾌락주의는 쾌락의 정의나 쾌락의 계산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갖고 있다. 쾌락의 원천은 다양한데, 과연 서로 다른 쾌락을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가? 가령 식욕의 충족에서 비롯된 쾌락과 사회적 명예의 획득에서 비롯된 쾌락은 같은 것인가? 이에 대해 벤담은 이 쾌락들이 질적으로 동일하며 양적으로 다를 뿐이라고 대답함으로써 쾌락주의의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었으나, 저급한 돼지의 쾌락과 고차원적인 인간의 쾌락을 동일시하여 결국 돼지와 인간을 동등한 존재로 간주하였다는 점에서 비쾌락주의자로부터 '돼지의 철학'이라고 비판받았다. 밀은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인간이 더 낫고, 만족한 바보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고 주장하면서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했다. 그런데 이 입장을 취하게 되면, ④⑤ 이질적인 쾌락을 어떻게 서로 비교할 수 있는가 하는 계산의 문제가 발생한다. 밀은 이질적인 쾌락이라고 해도 ③ 양자를 모두 경험한 다수의 사람이 선호하는 쾌락을 고급 쾌락이라고 하면서 저급 쾌락과 고급 쾌락을 구분하였다. 인간은 자유롭고 존엄한 삶을 추구하는 존재인데, 이러한 ②③ 자유와 존엄성의 실현에 기여하는 고급 쾌락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후대의 다른 쾌락주의자들은 ① 밀이 쾌락주의의 입장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하기도 하였다.</p> <p>14. 위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p> <p>① 밀은 쾌락이 도구적 가치를 지닌다는 입장을 포기하였다. ② 밀은 도덕적 가치 평가에서 쾌락 이외의 다른 기준을 도입하였다. ③ 밀은 쾌락의 원천이 단일하지 않고 다양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④ 밀은 모든 쾌락을 하나의 기준으로 환원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⑤ 밀은 질적 차이가 있는 쾌락을 서로 비교하여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다.</p>	
<p>[실전]</p> <p>①은 도구적 가치와 무관해서 시작부터 지워야 한다. ③은 '쾌락의 원천'에 대해 다론적이 없으므로 제외할 수 있다. ④는 '계산의 문제'라고 하였으므로 제외할 수 있다. ✓ 이외에 ②⑤는 모두 옳은 선지처럼 보인다. '쾌락주의'에 대한 정의를 살펴봐야 한다. ✓ 자세히 살펴보면 '질적 차이'와 '다른 기준'이 유사한 의미이다. 즉, (②의 내용) + (계산의 여부) = (⑤의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쾌락주의의 입장에 계산의 여부는 전면적으로 반박하고 있지 않으며, 더불어, ②가 안전한 선택지가 될 것이다.</p>	<p>[정석]</p> <p>① 쾌락과 도구적 가치는 언급된 바 없다. ② 밀은 도덕적 가치 평가에서 쾌락 이외의 '저급/고급'과 같은 기준을 도입하였다. 이로 인해 '가치가 있는 또 다른 요소'가 생겨났다. ③ 쾌락의 원천은 언급된 바가 없다 ④ 이질적인 쾌락은 비교할 수 없다는 '계산의 문제' 발생 ⑤ 밀은 질적 차이가 있는 쾌락을 서로 비교하여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으나, 이로 인해 쾌락주의적 입장을 저버린 것은 아니다. '질적 차이'를 뒤서 문제가 생긴 것.</p>

**이비에스
배경지식의
이해**

MEMO

**이비에스
배경지식의
이해**

DAY 2

2025 개념08	서구 자연 철학에서의 공간관의 변화 (1)
수특 31p	

서구 자연 철학에서의 공간관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다. 고대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공간을 물질이 존재하는 곳, 즉 '장소'로 정의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공간은 물질의 경계에 의해 정의되며, 물질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로 간주되었다. 이는 고대 그리스 철학의 물질 중심적 세계관을 반영한 것으로, 공간은 물질의 속성 중 하나로 이해되었다.

중세로 접어들면서, 기독교 신학의 영향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수정되었다.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는 공간을 신이 창조한 물질적 세계의 일부로 보았다. 아퀴나스는 공간을 비어있는 곳으로 보았지만, 여전히 물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이는 중세 철학에서 공간이 물질과 신의 창조라는 두 가지 개념에 의해 규정되는 것을 의미했다.

근대에 이르러, 데카르트는 공간을 '연장'으로 정의하면서 공간 개념에 대한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냈다. 데카르트는 공간을 물질과 분리된 독립적인 존재로 보았다. 그는 공간을 물질이 존재할 수 있는 무한한 연장으로 보았으며, 이는 물질이 없어도 공간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했다. 이는 공간을 절대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보는 관점의 시작이었다.

뉴턴은 데카르트의 이론을 확장하여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을 제안하였다. 뉴턴에게 공간은 독립적이고 불변하는 것으로, 모든 물질과 운동의 배경을 이루는 절대적인 틀로 보았다. 이는 뉴턴 역학의 기반이 되었으며, 공간과 시간은 독립적인 절대적 실체로 간주되었다. 이로써 공간은 물질과 상호작용하지 않는 독립적인 존재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러한 절대적 공간 개념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아인슈타인은 공간과 시간이 독립적이지 않으며, 서로 결합된 시공간 연속체로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중력에 의해 시공간이 휘어질 수 있다는 개념을 포함하며, 물질이 시공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공간을 더 이상 독립적이고 불변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동적이고 변화할 수 있는 존재로 재정의하였다.

결론적으로, 서구 자연 철학에서의 공간관은 고대 그리스의 물질 중심적 관점에서 중세의 신학적 관점, 근대의 독립적 연장 개념, 그리고 현대의 상대성 이론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다. 이러한 변화는 과학과 철학의 발전에 따라 공간 개념이 어떻게 진화해왔는지를 보여

주며, 공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얼마나 복잡하고 깊어졌는지를 나타낸다.

OX 퀴즈

- ✓ 아리스토텔레스는 공간을 물질이 존재하는 곳으로 정의하였다. (O/X)
- ✓ 토마스 아퀴나스는 공간을 비어있는 곳으로 보았지만, 신의 창조와 연관지었다. (O/X)
- ✓ 데카르트는 공간을 물질과 분리된 독립적인 존재로 보았다. (O/X)
- ✓ 뉴턴은 공간을 물질과 상호작용하는 독립적인 실체로 보았다. (O/X)
- ✓ 아인슈타인은 공간과 시간이 서로 결합된 시공간 연속체로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O/X)

정답: 000X0

2025 개념08	서구 자연 철학에서의 공간관의 변화 (2)
수특 31p	

뉴턴의 공간과 시간에 대한 견해는 근대 과학의 기초를 마련하며, 이후 수세기 동안 과학적 사고에 큰 영향을 미쳤다. 뉴턴은 공간과 시간을 독립적이고 절대적인 존재로 간주하였다. 그의 절대 공간 개념은 공간이 물질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절대 시간은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 보편적이고 균일한 시간의 흐름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견해는 고전 물리학의 근간을 이루었으며, 과학자들이 자연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중요한 틀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20세기 초,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등장하면서 뉴턴의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 개념은 큰 도전을 받게 되었다.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이 서로 독립적인 절대적 존재가 아니라, 물질과 에너지의 분포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인 것임을 보여주었다.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이 관측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으며,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중력에 의해 시공간이 휘어질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는 공간과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고, 동적이며 상호 의존적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철학적으로 볼 때, 뉴턴의 절대 공간과 시간 개념은 실재론의 입장과 맥을 같이한다. 실재론은 세계가 우리의 인식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철학적 입장으로, 뉴턴의 절대 공간과 시간 개념은 이러한 세계관을 반영한다. 반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경험주의와 구성주의적 관점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경험주의는 우리의 지식이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고 보며, 구성주의는 우리가 경험을 통해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지식이 형성된다고 본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시공간이 관찰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상대적으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철학적 입장과 일치한다.

또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칸트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관념론적 견해와도 유사성을 지닌다. 칸트는 시간과 공간이 우리의 인식 구조의 일부분으로서,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선험적 형태라고 주장하였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이 독립적 실체가 아니라, 물질과 에너지의 분포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 개념임을 보여줌으로써, 칸트의 인식론적 틀을 물리학적 차원에서 재확인한 셈이다.

결론적으로, 뉴턴의 절대 공간과 시간 개념은 고전 물리학과 실재론적 철학의 기초를 제공하였으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이러한 절대적 개념을 반박하고, 시

공간의 상대성을 통해 우리의 우주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이는 과학과 철학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의 인식이 어떻게 발전하고 변모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OX 퀴즈

- ✓ 뉴턴은 공간과 시간을 독립적이고 절대적인 존재로 간주하였다. (O/X)
- ✓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이 관측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혔다. (O/X)
- ✓ 뉴턴의 절대 공간과 시간 개념은 경험주의와 관련이 있다. (O/X)
- ✓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칸트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관념론적 견해와 유사성을 지닌다. (O/X)
- ✓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시공간이 독립적 실체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O/X)

정답: 00X00

2025 개념08	서구 자연 철학에서의 공간관의 변화 (3)
수특 31p	

현대물리학에서 시간과 공간의 상호작용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 크게 정의되었다. 특히, 일반 상대성 이론은 시공간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설명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시간과 공간은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하나의 연속체인 시공간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이는 물질과 에너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전까지는 뉴턴의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 개념이 널리 받아들여졌다. 뉴턴에 따르면,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이며 변하지 않는 틀로, 모든 사건은 이 틀 안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특수 상대성 이론을 통해 시간과 공간이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다르게 측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시간의 흐름이 일정하지 않으며,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이동하는 관찰자에게 시간은 더 느리게 흐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에 의해 시공간이 휘어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는 중력이 단순히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아니라, 시공간 자체의 곡률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규모의 질량을 가진 천체는 주변의 시공간을 휘게 만들어, 그 주변을 지나는 물체나 빛이 곡선을 그리며 움직이게 된다. 이는 중력 렌즈 효과로 관찰되며, 실제로 우주 관측에서 중요한 현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시공간의 휘어짐은 또한 블랙홀과 같은 극단적인 천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블랙홀은 그 질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주위의 시공간을 극단적으로 휘게 만든다.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event horizon)을 넘어서면, 시공간의 구조가 매우 비선형적으로 변하여 탈출이 불가능해진다. 이는 중력의 강도가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극단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이다.

현대물리학에서는 또한 양자 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의 통합을 시도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양자 중력(quantum gravity)은 미시적 규모에서 시공간의 구조를 설명하려는 이론으로, 양자역학적 효과가 시공간의 곡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다. 이러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완전한 통합 이론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지만, 이는 물리학의 중요한 연구 분야로 자리잡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대물리학에서 시간과 공간의 상호작용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 크게 정의되며, 이는 중력에 의해 시공간이 어떻게 변화하고, 그 변화가 물질과 에너지의 분포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한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의 우주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며, 물리학의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OX 퀴즈

- ✓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시공간이 물질과 에너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O/X)
- ✓ 뉴턴은 시공간이 절대적이며 변하지 않는 틀이라고 주장했다. (O/X)
- ✓ 중력 렌즈 효과는 중력에 의해 시공간이 휘어지지 않는 현상이다. (O/X)
- ✓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내부에서는 탈출이 가능하다. (O/X)
- ✓ 양자 중력은 양자역학적 효과가 시공간의 곡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O/X)

정답: 00XX0

2025 통합09-가 수특 259p	쿤이 주장한 과학 혁명과 통약 불가능성 (1)
---------------------------	----------------------------------

토머스 쿤(Thomas Kuhn)은 그의 저서 '과학 혁명의 구조'에서 과학이 진보하는 방식에 대한 혁신적인 관점을 제시하였다. 그는 과학이 점진적으로 축적되는 지식의 과정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불연속적인 혁명적 변화를 통해 발전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혁명적 변화는 기존의 과학적 패러다임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쿤은 이 과정을 과학적 패러다임(paradigm) 변화로 설명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기존의 것을 완전히 대체하게 되는 현상을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불렀다.

쿤에 따르면, 과학자들은 특정 패러다임 내에서 정상과학(normal science)을 수행하며, 이는 기존 패러다임의 틀 내에서 퍼즐을 푸는 활동에 해당한다. 정상과학은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문제 해결을 지향하며, 패러다임의 기본 가정에 도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존 패러다임으로 설명할 수 없는 반례(anomalies)가 누적되고, 이로 인해 과학적 위기가 발생한다. 이러한 위기는 기존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결함을 드러내며,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면 과학자들은 더 이상 이전의 패러다임을 사용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통약 불가능성(incommensurability) 문제가 발생한다. 통약 불가능성은 서로 다른 패러다임 간에 공통된 기준이나 언어가 없어, 서로의 이론을 직접 비교하거나 평가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쿤은 과학 혁명 과정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할 때, 이전 패러다임과의 개념적·방법론적 단절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서로 다른 패러다임 간의 의사소통이 어려워지며, 동일한 용어가 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쿤의 통약 불가능성 개념은 과학적 진보가 단순히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근본적인 개념적 변화를 수반하는 과정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과학적 이론과 새로운 이론이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관을 반영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예를 들어, 뉴턴 역학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서로 다른 패러다임을 대표하며, 각각의 이론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상이하다.

쿤의 과학 혁명 이론과 통약 불가능성 개념은 과학 철학 및 과학사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쳤으며, 과학적 지식의 본질과 과학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관점을 제공한다. 이 이론은 과학적 진보가 누적적이고 연속적인 과정이 아니라, 혁명적이고 비연속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과학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시한다.

OX퀴즈

- ✓ 쿤은 과학이 점진적으로 축적되는 지식의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O/X)
- ✓ 정상과학은 기존 패러다임의 틀 내에서 퍼즐을 푸는 활동에 해당한다. (O/X)
- ✓ 쿤은 과학 혁명이 발생할 때 통약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O/X)
- ✓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면 과학자들은 이전 패러다임을 사용하지 않게 된다. (O/X)
- ✓ 쿤의 통약 불가능성 개념은 과학적 진보가 근본적인 개념적 변화를 수반한다고 강조한다. (O/X)

정답: XOXOO

2025 통합09-가 수특 259p	쿤이 주장한 과학 혁명과 통약 불가능성 (2)
---------------------------	----------------------------------

과학 공동체 연구는 과학의 사회적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과학 공동체는 특정 분야의 과학자들이 연구 활동을 공유하고, 지식을 생산하며, 그들의 작업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사회적 집단이다. 이러한 공동체는 과학적 진리와 지식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첫째, 과학 공동체는 특정 연구 분야의 규범과 기준을 설정한다. 이는 연구자들이 수행하는 연구의 질과 정확성을 평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을 생산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과학 공동체는 연구 방법론, 데이터 분석, 결과 해석 등에 대한 표준을 확립하며, 이를 통해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보장한다.

둘째, 과학 공동체는 지식의 확산과 공유를 촉진한다. 연구자들은 학술지, 학회, 세미나 등을 통해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동료 연구자들과의 피드백을 주고받는다. 이러한 과정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발견을 널리 알리고, 다른 연구자들이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과학 공동체는 연구자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협력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 자원을 공유하는 데 기여한다.

셋째, 과학 공동체는 연구자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 성과를 통해 학문적 명성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 자금을 확보하거나 학계에서의 지위를 높일 수 있다. 과학 공동체는 연구자들의 업적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학문적 경력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다.

넷째, 과학 공동체는 과학적 지식의 사회적 구성에 영향을 미친다. 연구자들은 특정 연구 주제에 대한 관심과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연구 자원의 분배와 연구 방향을 결정한다. 이는 과학적 지식이 단순히 객관적 사실의 축적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에서 형성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과학 공동체는 과학적 지식의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의 이론과 방법론에 대한 도전을 통해 새로운 발견과 혁신이 이루어진다. 과학 공동체는 이러한 혁신을 지원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근법을 수용함으로써 과학의 발전을 이끌어 나간다.

결론적으로, 과학 공동체는 과학적 지식의 생산, 확산, 평가, 혁신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는 과학이 단순히 개인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와 상호작용 속에서 발전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과학 공동체에 대한 연구는 과학적 활동의 본질과 과학 지식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OX퀴즈

- ✓ 과학 공동체는 연구자들이 연구 활동을 공유하고 지식을 생산하는 사회적 집단이다. (O/X)
- ✓ 과학 공동체는 연구 방법론과 데이터 분석에 대한 표준을 확립하지 않는다. (O/X)
- ✓ 연구자들은 학술지를 통해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는다. (O/X)
- ✓ 과학 공동체는 연구자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O/X)
- ✓ 과학 공동체는 과학적 지식의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O/X)

정답: OXOXO

2025 통합09-가 수특 259p	쿠이 주장한 과학 혁명과 통약 불가능성 (3)
---------------------------	----------------------------------

현대 인지과학에서의 패러다임 전환은 인지과학의 발전과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다. 패러다임 전환은 기존의 지식 체계나 이론이 새로운 발견이나 이론으로 대체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는 인지과학의 여러 하위 분야에서 관찰된다. 인지과학은 심리학, 신경과학, 언어학, 철학, 인공지능 등 다양한 학문 분야가 융합된 학문으로, 각 분야에서의 패러다임 전환은 인지과학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첫째, 인지과학에서의 주요 패러다임 전환 중 하나는 정보처리 모델에서 연결주의 모델로의 이동이다. 초기 인지과학은 인간의 인지 과정을 컴퓨터의 정보처리 방식과 유사하게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는 마음을 일종의 계산 시스템으로 보는 관점이었다. 그러나 이후 신경과학의 발달과 함께, 인간의 인지 과정이 신경망(neural network)과 유사하다는 연결주의(connectionism) 모델이 부상하였다. 연결주의 모델은 뇌의 뉴런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과 기억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며, 이는 인공지능 연구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둘째, 언어 이해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도 중요한 사례이다. 노암 촘스키의 생성 문법(generative grammar)이 주도하던 시기에는 언어 능력이 선천적인 문법 규칙에 의해 지배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후 사용 기반 모델(usage-based models)과 같은 접근법이 등장하며, 언어가 사용과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는 관점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접근은 언어 학습이 환경과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 과정을 강조한다.

셋째, 의식 연구에서도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났다. 과거에는 의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주관적 경험과 보고가 주요 방법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인지과학은 의식을 신경과학적 데이터와 연계하여 연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뇌의 특정 영역과 활동 패턴이 의식 경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탐구함으로써, 의식의 생리학적 기초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넷째,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패러다임 전환이 두드러진다. 초기 AI 연구는 규칙 기반 시스템과 명시적 프로그래밍에 의존하였으나, 최근에는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과 딥러닝(deep learning)이 중심이 되었다. 이러한 전환은 AI가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학습하고 패턴을 인식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였으며, 이는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혁신을 가능하게 했다.

결론적으로, 현대 인지과학에서의 패러다임 전환은 각 학문 분야에서 기존 이론과 모델이 새로운 발견과 이론으로 대체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인지과학의 발전과 변화를 촉진하며, 인간의 인지 과정과 뇌 기능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데 기여한다. 패러다임 전환은 인지과학이 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학문으로 발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OX퀴즈

- ✓ 정보처리 모델에서 연결주의 모델로의 이동은 인지과학의 패러다임 전환 중 하나이다. (O/X)
- ✓ 노암 촘스키의 생성 문법은 사용 기반 모델로 대체되었다. (O/X)
- ✓ 최근의 인지과학은 의식을 주관적 경험과 보고에만 의존하여 연구한다. (O/X)
- ✓ 초기 AI 연구는 규칙 기반 시스템과 명시적 프로그래밍에 의존하였다. (O/X)
- ✓ 패러다임 전환은 인지과학이 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학문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한다. (O/X)

정답: OOXOX

**이비에스
배경지식의
이해**

MEMO

이비에스
배경지식의
이해

DAY 3

2025 통합09-나 수특 259p	과학 이론의 선택과 과학에 대한 파이어아벤트의 주장 (1)
---------------------------	---

폴 파이어아벤트(Paul Feyerabend)는 과학 철학에서 급진적인 입장을 취한 학자로, 과학 이론의 선택과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전통적 견해를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과학의 발전이 특정 방법론이나 규칙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무엇이든 간에 다 괜찮다(Anything goes)"라는 유명한 구호를 내세웠다. 이는 과학의 발전이 다양한 접근과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파이어아벤트는 과학 이론의 선택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기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과학적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구성된다는 것이다. 그는 과학적 지식이 본질적으로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관점을 강조하며, 과학이 인간 활동의 한 형태로서 다양한 사회적 영향 아래에서 발전한다고 보았다.

그는 과학자들이 과학적 발견을 위해 기존의 규칙을 깨고 새로운 접근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이어아벤트는 과학의 역사를 통해 혁신적인 발견들이 종종 기존의 방법론을 벗어난 접근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예로 들며, 과학이 고정된 틀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통해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이어아벤트는 또한 과학적 방법론의 다양성을 강조했다. 그는 과학이 단일한 방법론에 의해 발전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여러 가지 방법론이 공존하고 경쟁해야 과학이 발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과학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파이어아벤트는 과학의 진보가 고정된 방법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접근과 방법론을 수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파이어아벤트는 과학 이론의 선택과 과학적 방법론에 있어서 다양한 접근과 방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학이 고정된 규칙과 방법론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통해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과학이 단순히 객관적 사실의 축적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에서 형성되고 발전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OX퀴즈

- ✓ 파이어아벤트는 과학이 고정된 방법론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O/X)
- ✓ 과학 이론의 선택은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O/X)
- ✓ 파이어아벤트는 과학적 발견을 위해 기존 규칙을 깨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O/X)
- ✓ 과학적 진리는 절대적이며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O/X)
- ✓ 파이어아벤트는 과학적 방법론의 다양성을 강조했다. (O/X)

정답: XOXOX

2025 통합09-나 수특 259p	과학 이론의 선택과 과학에 대한 파이어아벤트의 주장 (2)
---------------------------	---

과학 이론의 선택과 발전에 대한 폴 파이어아벤트의 주장은, 과학의 혁신이 단일한 방법론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접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를 뉴턴의 공간관과 아인슈타인의 공간관의 전환을 통해 살펴보면, 파이어아벤트의 관점에서 과학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할 수 있다.

뉴턴의 공간관은 17세기와 18세기 동안 과학적 패러다임의 중심을 이루었다. 뉴턴은 공간을 독립적이고 절대적인 것으로 보았으며, 이는 당시의 사회적, 철학적 맥락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다. 절대 공간은 불변하는 무대와 같아서, 모든 물체가 그 위에서 운동하며, 공간 자체는 외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여겨졌다. 이러한 관점은 고전 역학의 기초가 되었고, 당대의 과학자들 사이에서 널리 받아들여졌다.

반면,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공간과 시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아인슈타인은 공간과 시간을 절대적인 개념으로 보지 않고, 서로 결합된 시공간의 일부분으로 보았다. 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공간은 물질과 에너지에 의해 휘어질 수 있으며, 이는 중력의 작용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뉴턴의 절대 공간 개념을 혁신적으로 대체하며, 새로운 과학적 패러다임을 형성했다.

파이어아벤트는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을 사회적 맥락에서 해석하며, 과학적 진리가 절대적이지 않고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의해 구성된다고 보았다. 그는 과학이 특정한 방법론이나 규칙에 얽매어서는 안 되며, 다양한 접근과 방법이 모두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뉴턴의 절대 공간 개념이 당시의 사회적, 철학적 맥락에서 받아들여졌다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20세기 초반의 새로운 과학적, 철학적 사고와 기술적 발전에 의해 지지를 받았다.

파이어아벤트는 과학적 탐구의 과정이 본질적으로 비합리적이고 비규칙적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과학의 역사를 통해 혁신적인 발견들이 종종 기존의 방법론을 벗어난 접근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지적하며, 과학이 고정된 틀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통해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턴에서 아인슈타인으로의 전환은 과학이 고정된 규칙과 방법론을 초월하여, 새로운 증거와 이론을 수용함으로써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파이어아벤트는 뉴턴의 절대 공간 개념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과

학의 사회적 구성과 혁신적인 발전의 예로 해석하였다. 이는 과학적 탐구가 다양한 접근과 방법론을 통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과학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OX퀴즈

- ✓ 뉴턴의 공간관은 17세기와 18세기 동안 과학적 패러다임의 중심을 이루었다. (O/X)
- ✓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공간과 시간을 절대적인 개념으로 본다. (O/X)
- ✓ 파이어아벤트는 과학적 진리가 절대적이라고 주장했다. (O/X)
- ✓ 뉴턴에서 아인슈타인으로의 전환은 과학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여준다. (O/X)
- ✓ 파이어아벤트는 과학이 고정된 규칙과 방법론에 얽매어야 한다고 보았다. (O/X)

정답: OXXOX

2025 통합09-나 수특 259p	과학 이론의 선택과 과학에 대한 파이어아벤트의 주장 (3)
---------------------------	---

칼 포퍼와 토머스 쿤은 과학 철학의 두 기둥을 형성하는 이론가들로, 그들의 사상은 서로 상반되는 측면이 많다. 포퍼는 과학 이론의 진리 근접도를 강조하며, 과학적 발견이 반증을 통해 진리에 점진적으로 다가간다고 주장한다. 반면, 쿤은 과학 혁명과 패러다임 전환을 중심으로 과학의 발전을 설명한다.

포퍼의 과학 이론에 따르면, 과학자는 관찰과 실험을 통해 이론을 검증하고, 이론이 틀렸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반증 사례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반증될 수 없는 이론은 과학적이지 않다고 본다. 포퍼는 모든 과학 이론이 잠정적이며, 반증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를 통해 과학적 지식이 누적적이고 점진적으로 진보한다고 믿었다.

반면, 쿤의 패러다임 이론은 과학 혁명의 불연속적 성격을 강조한다. 그는 과학 발전이 정상과학과 과학 혁명이라는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정상과학 단계에서는 과학자들이 공통의 패러다임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며, 이 패러다임 내에서의 문제 해결을 시도한다. 그러나 점차 축적된 이례 현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과학 혁명이 일어나며, 이는 기존 패러다임의 붕괴와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래로 이어진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은 과학자 공동체의 시각과 연구 방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며, 과학 발전의 본질을 불연속적으로 만든다.

포퍼와 쿤의 견해는 과학적 지식의 성격과 발전 방식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포퍼의 진리 근접도는 과학적 지식이 경험적 검증을 통해 점진적으로 진리에 가까워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쿤의 패러다임 이론은 과학 지식이 혁명적 전환을 통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두 이론은 과학이 단순히 누적적 진보만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으며, 때로는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서도 발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포퍼의 진리 근접도와 쿤의 패러다임 이론은 과학 철학의 중요한 두 축을 형성하며, 과학의 발전 과정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한다. 이러한 시각은 과학 연구 방법론, 과학 교육, 과학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과학적 사고와 이론의 발전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OX퀴즈

- ✓ 포퍼는 모든 과학 이론이 잠정적이며 반증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고 주장했다. (O/X)
- ✓ 쿤은 과학 발전을 정상과학과 과학 혁명이라는 두 단계로 나누어 설명했다. (O/X)
- ✓ 포퍼는 과학적 지식이 불연속적으로 발전한다고 주장했다. (O/X)
- ✓ 쿤의 패러다임 전환은 기존 패러다임의 붕괴와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래를 의미한다. (O/X)
- ✓ 포퍼와 쿤의 이론은 과학 발전의 본질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제공한다. (O/X)

정답: 00X00

2025 유형02나 수완 14p	아리스티포스와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와 그 반전 (1)
-------------------------	--------------------------------------

아리스티포스와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는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두드러진 입장을 차지하고 있다. 두 사상가는 쾌락을 인간 삶의 주요 목표로 삼았지만, 그 해석과 접근 방식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아리스티포스는 키레네 학파의 창시자로서 쾌락을 즉각적이고 감각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는 순간적인 즐거움을 중시하며, 쾌락을 최대한으로 추구하는 삶이 최상의 삶이라고 주장했다. 아리스티포스는 쾌락을 고통의 부재로 정의하지 않고, 쾌락 그 자체를 긍정적인 경험으로 간주하였다.

반면,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를 보다 복잡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해하였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단순히 감각적인 즐거움으로 제한하지 않고, 정신적 평온과 고통의 부재를 중시하였다. 그는 육체적 쾌락보다 정신적 쾌락을 더 중요하게 여겼으며, 지속적인 행복을 위해 욕망을 절제하고 자족하는 삶을 강조했다. 에피쿠로스는 자연적인 욕구와 비자연적인 욕구를 구분하며, 후자는 불필요하고 해로운 것으로 보았다.

에피쿠로스의 철학은 윤리적 차원에서 쾌락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포함한다. 그는 쾌락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주장하면서도, 모든 쾌락이 동일하게 가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통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더 큰 쾌락을 얻기 위해 단기적인 고통을 감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철학자는 쾌락의 본질과 그것을 추구하는 방법에 있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했지만, 그들의 사상은 모두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아리스티포스는 즉각적이고 감각적인 쾌락을 중시하며, 현재의 즐거움을 최대화하는 삶을 강조한 반면, 에피쿠로스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정신적 평온과 자족을 중요시하였다. 이로 인해 두 철학자는 쾌락주의의 다양한 측면을 탐구하고 발전시켰으며, 각각의 관점은 현대 윤리학과 행복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OX 퀴즈

- ✓ 아리스티포스는 쾌락을 즉각적이고 감각적인 것으로 보았다. (O/X)
- ✓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단순히 감각적인 즐거움으로 제한하였다. (O/X)
- ✓ 에피쿠로스는 육체적 쾌락보다 정신적 쾌락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O/X)
- ✓ 아리스티포스와 에피쿠로스는 쾌락의 본질과 추구 방법에 있어 동일한 입장을 취하였다. (O/X)
- ✓ 에피쿠로스는 모든 쾌락이 동일하게 가치 있다고 보았다. (O/X)

답: OXOX

2025 유형02나 수완 14p	아리스티포스와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와 그 반전 (2)
-------------------------	--------------------------------------

아리스토텔레스와 아리스티포스의 사상은 행복과 쾌락에 대한 관점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인간의 궁극적 목적을 행복(eudaimonia)으로 보았으며, 이를 일종의 활동적 상태로 정의하였다. 그는 행복을 단순한 감각적 쾌락이 아닌, 인간의 이성적 활동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선으로 여겼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arete)을 통해 인간의 고유한 기능을 완전하게 수행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주장하며, 덕 있는 삶을 강조했다. 덕은 이성적 선택을 통해 형성되며, 이는 곧 중용(mesotes)을 따르는 것이다. 중용이란 지나침과 모자람 사이의 적절한 상태로, 이는 개인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반면, 아리스티포스는 쾌락주의의 창시자로, 쾌락을 삶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그는 모든 쾌락이 본질적으로 좋은 것이며, 고통은 나쁜 것이라고 보았다. 아리스티포스는 즉각적이고 감각적인 쾌락을 중시하며, 쾌락을 최대화하는 삶을 지향하였다. 그의 사상은 쾌락의 양적 측면을 강조하며, 가능한 한 많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아리스티포스는 감각적 쾌락을 중요한 가치로 삼았고, 이는 종종 즉흥적이고 순간적인 만족으로 이어졌다.

이 두 철학자의 관점은 쾌락과 행복의 개념을 통해 인간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행복을 위해 이성적 활동과 덕을 강조하며, 이는 자아실현과 공동체적 삶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반면, 아리스티포스는 즉각적이고 감각적인 쾌락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차이는 현대 윤리학과 심리학에서도 중요한 논의의 주제가 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은 지속 가능한 삶의 목표 설정과 자기 발전을 강조하는 데 기여하며, 아리스티포스의 쾌락론은 삶의 순간적 즐거움과 감각적 만족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결국, 이 두 관점은 인간의 복잡한 삶의 경험을 이해하고, 개인과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OX 퀴즈

- ✓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궁극적 목적을 행복으로 보았다. (O/X)
- ✓ 아리스티포스는 쾌락을 삶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O/X)
- ✓ 아리스토텔레스는 감각적 쾌락을 중시하였다. (O/X)
- ✓ 아리스티포스는 덕을 통해 인간의 고유한 기능을 완전하게 수행하는 것을 강조했다. (O/X)
- ✓ 아리스토텔레스는 덕 있는 삶을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행복을 추구하였다. (O/X)

답: OOXOX

2025 유형02나 수완 14p	아리스티포스와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와 그 반전 (3)
-------------------------	--------------------------------------

아리스티포스와 공리주의는 쾌락주의를 지향하지만, 그 접근 방식과 철학적 배경에는 큰 차이가 있다. 아리스티포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로, 쾌락이 인생의 최고 선이며 삶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주장했다. 그의 쾌락주의는 즉각적이고 감각적인 쾌락을 중시하며, 쾌락의 강도와 즉각성을 중요시한다. 이는 쾌락을 직접적이고 감각적인 경험으로 인식하며, 개인의 즉각적인 즐거움이 최우선이라고 본다.

반면, 공리주의는 제러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에 의해 발전된 철학적 이론으로, 쾌락의 양과 질을 모두 고려하는 보다 복잡한 접근을 제시한다. 벤담은 쾌락과 고통의 양을 계산하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쾌락 계산법'으로 체계화했다. 반면, 밀은 쾌락의 질적 차이에 주목하여, 정신적 쾌락이 육체적 쾌락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족한 돼지보다는 불만족한 인간이 낫고, 만족한 바보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낫다"라고 강조하며, 쾌락의 질적 측면을 중시했다.

아리스티포스의 쾌락주의는 개인의 즉각적이고 감각적인 즐거움을 중시하는 반면, 공리주의는 전체 사회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리주의는 개인의 쾌락이 사회 전체의 행복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고려하며,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도 중요한 요소로 본다. 이는 아리스티포스의 쾌락주의가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띠는 반면, 공리주의는 집단적 행복을 중시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아리스티포스와 공리주의는 모두 쾌락을 중요한 가치로 삼지만, 접근 방식과 중점이 되는 가치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보인다. 아리스티포스는 개인의 즉각적인 쾌락을 강조하는 반면, 공리주의는 사회 전체의 행복을 목표로 하여, 쾌락의 양과 질을 모두 고려하는 보다 복합적인 이론을 제시한다.

OX퀴즈

- ✓ 아리스티포스는 쾌락이 인생의 최고 선이며 삶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주장했다. (O/X)
- ✓ 공리주의는 제러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에 의해 발전되었다. (O/X)
- ✓ 아리스티포스의 쾌락주의는 쾌락의 질적 차이를 중시한다. (O/X)
- ✓ 공리주의는 전체 사회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O/X)
- ✓ 공리주의는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도 중요한 요소로 본다. (O/X)

정답: 00X00

2025 유형02나 수완 14p	아리스티포스와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와 그 반전 (4)
-------------------------	--------------------------------------

키레네 학파와 스토아 학파는 쾌락에 관한 매우 상반된 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아리스티포스를 비롯한 키레네 학파는 쾌락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쾌락을 삶의 최고 목표로 여겼다. 그들은 쾌락을 단순한 감각적 즐거움으로 정의하고, 일시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을 지향했다. 아리스티포스는 인간의 삶이 본질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며, 쾌락을 얻기 위한 모든 행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에게 쾌락은 고통의 부재였으며, 순간적인 즐거움에 초점을 맞추었다.

반면, 스토아 학파는 쾌락을 경시하며, 덕과 이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다.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은 쾌락이 아닌, 덕을 통해 인간이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제노와 세네카 같은 스토아 철학자들은 쾌락을 외적인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일시적인 감정으로 간주하고, 자제와 금욕을 통해 내적인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결국 고통을 초래할 수 있으며, 진정한 행복은 덕을 실현하는 데서 온다고 보았다.

두 학파의 이러한 차이는 그들의 인간관과 삶의 목표에서도 드러난다. 키레네 학파는 감각적 쾌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자 했다. 그러나 스토아 학파는 쾌락을 초월하여, 인간의 내면적 평화와 덕성을 중시했다. 이들은 외부의 쾌락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내면에서 오는 평정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결국, 키레네 학파와 스토아 학파는 쾌락과 행복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키레네 학파는 즉각적인 쾌락과 감각적 즐거움을 강조한 반면, 스토아 학파는 자제와 금욕을 통해 내적인 평정을 유지하고 덕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철학적 차이는 두 학파가 제시하는 삶의 방식과 목표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OX퀴즈

- ✓ 아리스티포스는 쾌락을 삶의 최고 목표로 여겼다. (O/X)
- ✓ 스토아 학파는 쾌락을 경시하며 덕과 이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다. (O/X)
- ✓ 키레네 학파는 일시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을 지향했다. (O/X)
- ✓ 제노와 세네카는 쾌락을 외적인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일시적인 감정으로 간주했다. (O/X)
- ✓ 스토아 학파는 외부의 쾌락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에서 오는 평정을 중시했다. (O/X)

정답: 00X00

2025 유형02나 수완 14p	아리스티포스와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와 그 반전 (5)
-------------------------	--------------------------------------

프리드리히 니체와 에피쿠로스는 쾌락에 관한 철학적 관점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 니체는 고통과 쾌락을 인간의 경험으로 받아들이며, 이를 통해 자신을 초월하고 강한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쾌락을 단순한 감각적 즐거움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인간의 본질적인 자기 극복과 연관된 것으로 본다. 니체에게 있어 쾌락은 자아 실현과 창조적 힘의 표현이며, 이는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욱 강화된다.

반면,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삶의 궁극적 목표로 삼는 쾌락주의를 제창했다. 그러나 그의 쾌락주의는 단순한 감각적 쾌락을 넘어서, 고통의 부재와 마음의 평온을 중시하는 더 고차원적인 쾌락을 추구한다. 에피쿠로스는 육체적 쾌락보다 정신적 쾌락을 더 중요시하며, 평온한 삶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무한한 욕망을 억제하고, 소박한 삶을 통해 고통을 최소화하며,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삶을 권장했다.

니체는 쾌락을 통해 고통을 극복하고, 자기 초월을 이루는 과정에서 인간의 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된다고 본다. 그는 인간이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강한 개인으로 성장할 때 진정한 쾌락을 경험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쾌락을 자기 계발과 연결시키며, 인간의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본성을 강조한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통해 고통을 피하고,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는 불필요한 욕망을 억제하고, 단순한 삶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며, 이는 마음의 평화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에피쿠로스에게 쾌락은 욕망의 만족을 통한 일시적인 즐거움보다는 지속적인 평온과 관련이 있다.

이 두 철학자의 견해는 쾌락에 대한 이해와 접근 방식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니체는 쾌락을 고통의 극복과 자기 초월의 과정으로 보며,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고통의 부재와 마음의 평온을 통해 달성되는 것으로 본다. 니체의 쾌락은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삶의 결과이며, 에피쿠로스의 쾌락은 소박하고 평온한 삶의 결과이다.

OX퀴즈

- ✓ 니체는 쾌락을 인간의 본질적인 자기 극복과 연관된 것으로 본다. (O/X)
- ✓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삶의 궁극적 목표로 삼지만, 고통의 부재와 마음의 평온을 중시한다. (O/X)
- ✓ 니체는 쾌락을 단순한 감각적 즐거움으로 여긴다. (O/X)
- ✓ 에피쿠로스는 무한한 욕망을 억제하고, 소박한 삶을 통해 고통을 최소화하려 한다. (O/X)
- ✓ 니체의 쾌락은 자기 계발과 연결된다. (O/X)

정답: 00X00

2025 인예03	시대의 흐름에 따른 코나투스 의미 변화와 특성 (1)
수특 62p	

코나투스(Conatus)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다소 변형되었으며, 이는 철학적 사조의 변화와 맞물려 그 의미와 특성이 재조명되었다. 코나투스는 라틴어로 "노력"이나 "의지"를 의미하며, 철학적 맥락에서 존재의 자기보존 욕구를 나타낸다.

고대 철학에서 코나투스는 주로 스토아 학파와 같은 철학자들에 의해 논의되었다. 이들은 코나투스를 존재의 본질적 특성으로 간주하였으며, 모든 존재가 자신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내재적 충동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스토아 철학자들은 코나투스를 자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만물의 본질로 보았다.

중세 철학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 아래 코나투스 개념이 더 정교화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존재가 자신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텔로스'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이는 코나투스의 개념이 단순히 자기보존을 넘어 존재의 완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중세 철학적 관점은 후에 스피노자 철학자들에 의해 더욱 체계화되었다.

근대 철학에서는 데카르트와 스피노자가 코나투스 개념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데카르트는 코나투스를 물리적 세계의 운동과 결합시켜 설명하였으며, 존재가 자신의 운동을 지속하려는 힘으로 이해하였다. 반면, 스피노자는 코나투스를 존재의 본질적 속성으로 간주하며, 모든 존재는 자기보존을 위한 내재적 노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를 '능력'(potentia)과 결부시켜 설명하였으며, 존재의 자기보존 욕구는 존재의 능력에 비례한다고 보았다. 이는 코나투스가 단순한 생물학적 생존을 넘어서 존재의 본질과 깊이 연결된 개념임을 시사한다.

현대 철학에서는 코나투스 개념이 실존주의와 현상학적 관점에서 재조명되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코나투스를 인간 존재의 근본적 특성으로 보았으며,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하였다. 예를 들어, 사르트르는 인간 존재의 자유와 선택이 코나투스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반면, 현상학에서는 코나투스를 존재의 현상적 경험과 연관지어 설명하였다. 이는 존재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자기보존과 자기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코나투스의 의미 변화는 철학적 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맥락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각 시대의 철학자들은 코나투스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였으며, 이는 코나투스가 철학적 탐구의 중요한 주제로

지속적으로 다루어져 왔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코나투스는 단순한 자기보존을 넘어 존재의 본질적 특성과 능력을 탐구하는 중요한 철학적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OX 퀴즈

- ✓ 스토아 철학자들은 코나투스를 자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만물의 본질로 보았다. (O/X)
- ✓ 아리스토텔레스는 코나투스를 단순히 자기보존을 위한 노력으로 간주하였다. (O/X)
- ✓ 데카르트는 코나투스를 물리적 세계의 운동과 결합시켜 설명하였다. (O/X)
- ✓ 스피노자는 코나투스를 존재의 능력과 결부시켜 설명하였다. (O/X)
- ✓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코나투스를 인간 존재의 근본적 특성으로 보지 않았다. (O/X)

정답: OXOX

2025 인예03	시대의 흐름에 따른 코나투스 의미 변화와 특성 (2)
수특 62p	

스피노자의 코나투스와 노자의 도가사상 "무위와 자연"의 관련성과 비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스피노자의 철학에서 코나투스는 모든 존재가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고자 하는 본질적 노력으로 정의된다. 이는 존재의 본질에 내재된 자기 보존의 욕구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의 존재들이 자신을 유지하고자 하는 힘을 의미한다. 스피노자는 이를 통해 존재의 연속성을 설명하며, 모든 존재는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코나투스는 개별 존재가 자신의 본질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각 존재는 자신의 본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반면, 노자의 도가사상에서는 무위와 자연이 중심 개념으로 등장한다. 무위는 인위적인 노력을 피하고 자연의 흐름에 따르는 것을 의미하며, 자연은 인간과 우주의 본성을 그대로 따르는 상태를 뜻한다. 노자는 인간이 인위적인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연의 이치를 따를 때,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무위는 인간의 욕망과 집착을 버리고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삶의 방식으로, 자연과의 일체감을 강조한다.

스피노자의 코나투스와 노자의 무위는 겉으로 보기에 상반된 개념처럼 보일 수 있으나, 두 철학은 존재의 본질과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자 하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스피노자는 코나투스를 통해 존재의 자기 보존과 자아 실현을 설명하며, 이를 통해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이해하려 한다. 반면, 노자는 무위를 통해 인간이 자연의 질서에 순응함으로써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본다.

두 철학의 차이점은 존재와 자연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드러난다. 스피노자는 존재의 본질적 노력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자연의 질서를 이해하려 한다. 반면, 노자는 인간이 인위적인 노력을 줄이고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두 철학 모두 존재와 자연의 조화를 중시하며, 인간이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따를 때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스피노자의 코나투스와 노자의 무위와 자연은 존재와 자연의 관계를 이해하는 두 가지 다른 접근 방식을 제공한다. 스피노자는 존재의 본질적 노력을 통해 자연의 질서를 이해하고자 하며, 노자는 인위적인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연의 흐름에 따르는 삶을 강조한다. 두 철학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존재와 자연의 조화를 추구하며, 인간이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따를 때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한다.

OX 퀴즈

- ✓ 스피노자의 코나투스는 존재의 본질적 노력을 의미한다. (O/X)
- ✓ 노자의 무위는 인위적인 노력을 피하고 자연의 흐름에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O/X)
- ✓ 스피노자는 인간이 인위적인 개입을 줄이고 자연의 흐름에 순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O/X)
- ✓ 노자의 철학에서 자연은 인간과 우주의 본성을 그대로 따르는 상태를 의미한다. (O/X)
- ✓ 스피노자와 노자는 모두 존재와 자연의 조화를 중시한다. (O/X)

정답:00X00

2025 인예03	시대의 흐름에 따른 코나투스 의미 변화와 특성 (3)
수특 62p	

스토아 학파와 스킨라 철학은 각각 고대 그리스와 중세 유럽에서 발전한 철학적 전통으로, 두 철학은 시대와 지역, 그리고 철학적 접근법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스토아 학파는 기원전 3세기경 그리스에서 제논에 의해 창시되었으며, 금욕주의와 이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반면, 스킨라 철학은 중세 유럽에서 주로 신학과 철학을 융합하려는 시도로 등장하였으며, 토마스 아퀴나스를 대표적인 학자로 꼽을 수 있다.

스토아 철학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스토아 학자들은 우주가 합리적이고 질서정연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었으며, 이성(logos)을 통해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그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곧 덕(virtue)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이들은 외부의 요인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정을 추구하며, 운명에 순응하는 태도를 강조하였다.

반면, 스킨라 철학은 기독교 신학과 고대 그리스 철학을 조화시키려는 시도로 시작되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기독교 교리와 통합하려는 노력이 두드러졌다. 스킨라 철학자들은 신앙과 이성이 조화를 이루며, 이성을 통해 신앙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의 저서 『신학대전』에서 신앙과 이성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기독교적 맥락에서 재해석하였다.

스토아 철학은 개인의 내면적 평화와 덕을 중시하였지만, 스킨라 철학은 신학적 문제를 해결하고 신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려는 시도를 강조하였다. 또한, 스토아 철학은 인간이 자연의 일부분으로서 자연의 법칙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스킨라 철학은 인간의 이성이 신의 섭리를 이해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두 철학은 각기 다른 시대적 요구와 철학적 과제를 반영하고 있다.

스토아 학파와 스킨라 철학의 비교는 그들의 철학적 목표와 방법론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스토아 학파는 개인의 도덕적 완성을 목표로 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강조하였고, 스킨라 철학은 신학적 진리를 탐구하고 이성을 통해 신앙을 뒷받침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두 철학 모두 인간 존재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깊은 사유를 담고 있지만, 접근 방식과 중점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철학사적 의미를 갖는다.

OX퀴즈

- ✓ 스토아 철학은 제논에 의해 창시되었다. (O/X)
- ✓ 스토아 철학은 인간의 내면적 평화와 덕을 중시하였다. (O/X)
- ✓ 스킨라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기독교 교리를 통합하려는 시도로 등장하였다. (O/X)
- ✓ 스킨라 철학은 외부의 요인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정을 강조하였다. (O/X)
- ✓ 토마스 아퀴나스는 스토아 철학의 대표적인 학자이다. (O/X)

정답: 000XX

**이비에스
배경지식의
이해**

DAY 4

2025 03-02가	기존의 귀납법을 보완하기 위한 베이컨의 참된 귀납법 (1)
수완 184p	

- EBS 원문

논증이란 전제를 근거로 결론을 도출하는 논리적 증명의 과정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논증의 방법으로는 연역법과 귀납법이 거론된다. 연역법은 전제로부터 결론이 필연적으로 나오는 '진리 보존적 논증법'이고, 귀납법은 결론이 확률적으로 나오는 '진리 확장적 논증법'이다. 예를 들어, 연역법은 모든 포유류는 심장을 가진다는 일반적 사실에서 각각의 말과 소 등이 심장을 가진다는 개별적 사실을 결론으로 도출하지만, 귀납법은 각각의 말과 소 등이 심장을 가진다는 개별적 사실에서 모든 포유류는 심장을 가진다는 일반적 사실을 결론으로 도출한다.

베이컨은 연역법이 전제된 내용으로부터 결론을 도출하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얻어 낼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여,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귀납법에 집중했다. 그러나 귀납법으로 얻은 결론은 확률적으로 참이어서 거짓일 수도 있다. 그래서 '참의 정도', 다시 말해 '귀납적 강도'를 높일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그 결과 베이컨은 앞서 언급한 귀납법보다 복잡한 사고 과정을 가진 새로운 귀납법을 구상해 냈다. 그 한 예로, '열'의 개념을 도출하기 위한 베이컨의 논증은 다음과 같은 사고 과정을 거친다.

우선 햇빛, 번개, 불꽃, 뜨거운 증기, 동물의 몸 등 열이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긍정적 사례'를 모은 '존재표'를 만든다. 그런 다음 각 긍정적 사례에 대응하는 '부정적 사례'를 모은 '부재표'를 만든다. 예를 들어 햇빛에는 달빛이, 뜨거운 증기에는 차가운 공기가 각각 부정적 사례로 대응된다. 그다음에는 열의 정도가 서로 다른 사례를 모아 '정도표'를 만든다. 예를 들어 가만히 있는 동물보다 움직이는 동물의 몸에서 열이 더 많이 난다는 등의 사례를 적는 것이다. 이렇게 존재표를 통해 열이 있을 때의 성질을, 부재표를 통해 열이 없을 때의 성질을, 그리고 정도표를 통해 열이 증감하는 성질을 정리한 다음, 이들 중 열에 대한 성질로 합당하지 않은 것들만을 모아 '배제표'를 만든다. 예를 들어 끓는 물은 열이 있는데도 빛나지 않기 때문에 빛나는 성질은 열의 성질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범위를 좁혀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귀납적 추리를 거쳐 베이컨이 열에 대해 얻은 결론은 놀랍게도 현대적 열 개념과 거의 일치한다. 베이컨은 개별적 사실에서 일반적 결론을 도출한다는 논증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배제표를 사용하여 귀납적 강도를 높여 감으로써 논증의 우수성을 확보한 것이다.

베이컨은 개미가 먹이를 모으듯 경험을 모으기만 하는 '개미의 방법'이나, 거미가 자기 속에서 하나의 실을 뽑아 내듯 자신의 확신에 따라 독자적으로 사고를 전개해 나가는 '거미의 방법'에서 벗어나, 꿀벌이 꽃들에서 구해 온 재료를 꿀로 바꾸어 내듯 경험을 통해 얻은 재료를 지성의 힘으로 변화시켜 소화하는 '꿀벌의 방법'이 참된 귀납법에 가장 부합한다고 보았다.

OX퀴즈

- ✓ 논증은 결론을 도출하는 논리적 과정만을 의미한다. (O/X)
- ✓ 연역법은 전제로부터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논증법이다. (O/X)
- ✓ 베이컨은 귀납법을 사용하여 얻은 결론이 절대적으로 참이라고 주장했다. (O/X)
- ✓ 베이컨의 새로운 귀납법에서는 '존재표', '부재표', '정도표', '배제표' 등을 사용하여 열의 성질을 분석했다. (O/X)
- ✓ 베이컨은 경험을 모으기만 하는 '개미의 방법'을 최상의 귀납법으로 보았다. (O/X)

정답: OXOX

2025 03-02가	기존의 귀납법을 보완하기 위한 베이컨의 참된 귀납법 (2)
수완 184p	

베이컨의 논증은 경험적 귀납법에 기초한 과학적 방법론의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중세 스콜라 철학의 연역적 추론 방식에서 벗어나 과학적 탐구를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베이컨은 자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관찰과 실험을 통한 경험적 증거를 중시하였다. 이는 당시 지배적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역적 방법론과는 대조적인 접근이었다.

베이컨은 과학적 지식을 확립하기 위한 과정으로 '노붐 오르가눔'에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반화하는 귀납법을 제안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연 현상에 대한 편견과 오류를 제거하는 방법을 강조하였다. 특히 그는 인간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우상'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네 가지 우상은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으로, 각각 인간 본성, 개인적 편견, 언어의 불완전성, 철학적 전통에서 기인하는 오류를 의미한다.

베이컨은 과학적 탐구가 이러한 우상들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찰과 실험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일반적인 법칙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그는 과학적 지식이 단순한 추상적 사변이 아닌, 실제 세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실용적 지식이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는 또한, 과학적 방법론의 발전을 위해 학문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다양한 학문 분야의 지식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더 나은 이해와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그의 철학은 후에 과학 혁명의 기초가 되었으며, 근대 과학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다.

OX 퀴즈

- ✓ 베이컨은 연역적 추론 방식을 지지했다. (O/X)
- ✓ 베이컨의 과학적 방법론은 경험적 귀납법에 기초한다. (O/X)
- ✓ 베이컨은 자연 현상에 대한 편견과 오류를 제거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O/X)
- ✓ 베이컨의 '우상' 중 하나는 '극장의 우상'이다. (O/X)
- ✓ 베이컨은 학문 간의 협력이 중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O/X)

정답: XOXOO

2025 모고03-02나	고전적 연역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데카르트의 생산적인 연역법 (1)
수완 184p	

데카르트는 수학처럼 다른 어떤 것의 도움 없이 자신의 확실성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을 '자명하다'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철학도 수학처럼 명료하고 분명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데카르트는 명료함과 분명함이 어떤 것인지부터 확실히 알아야 한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통증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어떤 사람이 통증을 느낄 때, 그 통증은 그에게 명료하더라도 분명하지는 않을 수 있다. 그것이 심리적 통증인지, 신체 어느 부위의 통증인지 확실치 않다면 통증의 적용 범위가 모호해져 분명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통증이 어느 부위인지 분명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벼워서 가려운 것인지 아픈 것인지조차 혼동이 된다면 그때는 통증이 애매해져 그에게 통증은 명료하지 않게 된다.

데카르트는 이렇게 애매하거나 모호한 판단에서 벗어나 명료하고 분명한 절대적 지식을 파악하고자 했다. 연역적 사고의 결과로 얻은 지식이 참이 되려면 아무도 의심할 수 없는 전제가 필요하므로, 데카르트는 자신이 자명하게 그러하다고 믿고 있었던 것들도 모두 참이 아닐 수 있다고 의심하는 사고를 계속해 나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착시현상과 같이 인간의 감각이 부정확하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감각적 경험을 통해 얻은 모든 지식을 의심하고 부정하였다.

또한 데카르트는 연역법을 바탕으로 한 고전적 논리학이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데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수학이나 기하학에서의 증명법과 같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자명한 명제에서 시작하여 또 다른 명제들을 하나씩 도출해 나가는 '데카르트적 연역'을 시도했다. 예를 들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이다.'라는 불변의 명제를 통해 사각형과 오각형의 내각의 합을 증명해내고, 또 이를 일반화하여 다각형 내각의 합을 구하는 공식을 추론해내는 방식을 반복한 것이다.

이렇게 데카르트는 고전적 연역법 대신 자신이 개발해 낸 생산적인 연역법을 통해 기본이 되는 전제의 틀 안에서 다른 지식들을 하나씩 연역해 냄으로써 지식 체계 전체를 만들어 나갔다. 그는 모든 철학 지식이 책상에 가만히 앉아 사고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증명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었으며, 그렇게 연역의 사고 과정을 거쳐 하나씩 진흙을 바르고 청동을 붓는 '첨가 방식'을 통해 절대적인 지식이라는 하나의 조각상을 완성해 나가고자 하였다.

OX 퀴즈

- ✓ 논증은 전제와 결론을 포함하는 과정이다. (O/X)
- ✓ 연역법은 결론이 전제에 의존하지 않는 논증법이다. (O/X)
- ✓ 귀납법으로 도출된 결론은 절대적으로 참일 수 있다. (O/X)
- ✓ 베이컨은 새로운 귀납법을 통해 현대적 열 개념과 유사한 결론을 도출했다. (O/X)
- ✓ 베이컨은 꿀벌의 방법을 참된 귀납법의 예로 들었다. (O/X)
- ✓

정답: 00X00

2025 모고04-01	사르트르 존재론에서의 '나'와 '타자'의 관계 (1)
수완 210p	

장폴 사르트르는 현대 철학에서 실존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의 철학적 주장은 주로 인간 존재의 본질과 자유, 책임에 관한 탐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그의 저서 "존재와 무"에서 구체화되었다. 사르트르는 인간이 '실존'하고, 그 다음에 '본질'이 형성된다고 주장하며, 이는 기존의 본질주의적 관점과는 상반된다.

사르트르의 이론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특정한 본질이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본질을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은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는 동시에, 그 자유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의 무게를 강조한다.

또한, 사르트르는 '타자의 시선'이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의 자의식과 대인 관계를 설명했다. 그는 타인의 시선이 인간의 자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신을 객체화하고,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타인의 시선이 인간에게 불안과 긴장을 유발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사르트르는 인간이 타자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사르트르의 철학은 또한 '나쁜 신앙(bad faith)' 개념을 포함한다. 나쁜 신앙이란 자신이 가지는 자유를 회피하고,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을 속이는 행위를 의미한다. 사르트르는 인간이 나쁜 신앙에 빠지는 이유를 두려움과 불안에서 찾았다. 인간은 자신의 자유와 그로 인한 책임을 직면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외부 요인이나 본질에 의존하여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사르트르의 철학적 탐구는 문학 작품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의 희곡 "닫힌 방"에서는 세 명의 인물이 단절된 공간에서 서로의 시선을 통해 고통받는 모습을 통해, 타인의 시선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이러한 문학적 작업을 통해 사르트르는 철학적 주장을 대중에게 쉽게 전달하려 노력했다.

종합적으로, 사르트르의 철학은 인간의 자유와 그로 인한 책임, 타인의 시선, 나쁜 신앙 등 여러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는 인간이 스스로의 존재를 규정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는 현대 실존주의 철학의 중요한 기초를 마련

했다.

OX 퀴즈

- ✓ 사르트르는 인간이 특정한 본질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주장했다. (O/X)
- ✓ 사르트르는 타인의 시선이 인간의 자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O/X)
- ✓ 나쁜 신앙이란 자신의 자유를 받아들이고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O/X)
- ✓ 사르트르는 "존재와 무"라는 저서를 통해 그의 철학적 주장을 구체화했다. (O/X)
- ✓ 사르트르는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규정하고 그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O/X)

정답: XOXOO

2025 모고04-01	사르트르 존재론에서의 '나'와 '타자'의 관계 (2)
수완 210p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철학에서 즉자존재와 대자존재의 개념은 존재의 두 가지 근본적 방식으로 나뉜다. 즉자존재는 자기 자신에게 단순히 '있음'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의식적 경험이 없는 물질적 존재를 나타낸다. 이러한 존재는 외부 세계에 그대로 놓여있으며, 그 자체로 완결된 존재다. 즉자존재는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으며, 외부 요인에 의해 변화되지 않는다. 사르트르는 이를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라 정의하며, '자기 자신과 동일한 존재'로 묘사한다. 즉자존재는 물질적 사물과 같이 그 자체로 완전하며, 어떠한 목적도, 의미도 내포하지 않는다.

반면, 대자존재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며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정의한다. 대자존재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자신의 존재를 초월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자기 자신을 향한 반성을 통해 자신의 본질을 끊임없이 재정의하는 존재를 의미한다. 대자존재는 자유로운 선택과 결단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창조하며, 이러한 자유는 본질적으로 불완전성과 불확실성을 수반한다. 사르트르는 대자존재를 '자신을 넘어서 존재하는 존재'로 규정하며, 이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넘어서는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질을 나타낸다.

즉자존재와 대자존재의 이러한 구분은 사르트르의 존재론적 프레임워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인간 존재의 본질과 자유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 즉자존재는 고정되고 불변하는 반면, 대자존재는 자유롭고 변화무쌍하며, 이러한 대립적 성격은 인간 존재의 복잡성을 드러낸다. 대자존재는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능력을 통해 즉자존재와 구별되며, 이는 인간이 자신을 초월하려는 욕망과 연결된다. 이처럼 사르트르는 인간 존재를 즉자와 대자의 이중적 구조 속에서 이해하며, 이는 그의 실존주의 철학에서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기초가 된다.

OX 퀴즈

- ✓ 즉자존재는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물질적 존재이다. (O/X)
- ✓ 대자존재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존재이다. (O/X)
- ✓ 사르트르에 따르면, 즉자존재는 목적과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O/X)
- ✓ 대자존재는 자유로운 선택과 결단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창조한다. (O/X)
- ✓ 즉자존재와 대자존재의 구분은 사르트르의 존재론적 프레임워크에서 중요하지 않다. (O/X)

답안: 00X0X

2025 모고04-01	사르트르 존재론에서의 '나'와 '타자'의 관계 (3)
수완 210p	

장 폴 사르트르와 알베르 카뮈는 20세기 중반 프랑스를 대표하는 철학자이자 문학가로, 실존주의라는 철학적 운동의 중심에 있었다. 두 인물은 그들의 철학적 신념과 문학적 작품을 통해 인간 존재의 의미와 자유, 책임에 대해 깊이 탐구하였다. 사르트르는 특히 그의 철학적 저서인 "존재와 무"를 통해 존재론적 탐구를 수행하였으며, 인간이 스스로의 본질을 창조하는 과정에서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였다. 그는 인간이 신의 부재 속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존재의 무의미성' 속에서의 '자유'로 표현하였다.

반면, 카뮈는 그의 저서 "이방인"과 "시지프 신화"를 통해 부조리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인간 존재를 탐구하였다. 그는 인간이 직면하는 부조리한 상황과 이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통해 삶의 의미를 모색하였다. 카뮈는 부조리한 세상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부조리 속에서도 삶을 긍정하고 반항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시지프 신화"에서는 부조리한 세계에서 시지프처럼 끊임없이 돌을 밀어 올리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 부조리 속에서의 인간의 불굴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사르트르와 카뮈는 초기에는 서로의 철학에 공감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점차 철학적 견해 차이로 인해 갈등을 겪게 되었다. 사르트르는 실존주의를 통해 인간의 자유와 선택, 책임을 강조하며 정치적 참여와 사회적 실천을 중시하였으나, 카뮈는 부조리 철학을 통해 인간 존재의 한계와 그 속에서의 삶의 의미를 탐구하며 정치적 이념보다는 개인의 윤리적 선택을 중시하였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결국 결별하게 되었고, 이는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의 중요한 논쟁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이러한 철학적 논쟁은 현대 철학과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사르트르와 카뮈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다. 그들의 철학은 인간 존재의 본질과 자유, 책임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각 개인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

OX 퀴즈

- ✓ 사르트르는 "존재와 무"를 통해 인간의 본질을 신이 정해준다고 주장하였다. (O/X)
- ✓ 카뮈는 "시지프 신화"에서 부조리한 세상에서도 삶을 긍정하고 반항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O/X)
- ✓ 사르트르와 카뮈는 철학적 견해 차이로 인해 결별하였다. (O/X)
- ✓ 카뮈는 정치적 참여와 사회적 실천을 강조하였다. (O/X)
- ✓ 사르트르와 카뮈의 철학적 논쟁은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의 중요한 논쟁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O/X)

정답: XOXOX

**이비에스
배경지식의
이해**

MEMO

**이비에스
배경지식의
이해**

DAY 5

2025 인예11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의 내용 (1)
수특 97p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은 전통적인 실체 철학을 비판하며, 우주의 기본 단위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변화하는 사건임을 주장한다. 화이트헤드는 그의 철학을 '과정 철학'이라 명명하며, 현실을 '과정'과 '관계'로 구성된 유기체적 실체로 이해한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체 중심적 세계관과는 대조적이며, 그의 철학은 현대 과학과의 연관성 속에서 재해석될 수 있다.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에서 핵심적인 개념은 '사건(actual occasions)'이다. 사건은 고정된 실체가 아닌, 경험의 순간들로 구성된 세계의 기본 단위이다. 각 사건은 과거의 사건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며, 이러한 과정은 '사건적 창조'라 불린다. 이 과정은 끊임없는 변화와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유기체적 전체가 형성된다.

화이트헤드의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사태(prehension)'이다. 사태는 사건들이 서로를 인식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각 사건이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 연결된 유기체적 전체의 일부로 작용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유기체 철학에서는 개별 사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전체가 형성되며, 이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망으로 이해된다.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은 또한 전통적인 시간과 공간 개념을 재해석한다. 시간과 공간은 고정된 배경이 아니라, 사건들이 발생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관계적 실체로 이해된다. 이는 뉴턴의 절대적 시간과 공간 개념과는 달리,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관점은 현대 물리학의 상대성 이론과도 연결되며, 우주론 동적이고 상호 연결된 시스템으로 보는 관점을 제공한다.

화이트헤드의 철학은 현대 과학, 특히 생물학과 생태학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 유기체적 세계관은 생명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며, 생태계의 복잡성과 상호 의존성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또한, 그의 철학은 윤리학과 사회학 분야에서도 응용될 수 있으며, 공동체와 개인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은 실체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변화와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이는 현대 과학과 철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유의미한 통찰을 제공하며, 고정된 실체가 아닌 유기적 전체로서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OX 퀴즈

- ✓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에서는 우주의 기본 단위를 고정된 실체로 본다. (O/X)
- ✓ '사건'은 화이트헤드 철학에서 경험의 순간들을 의미한다. (O/X)
- ✓ 화이트헤드의 개념 중 '사태'는 사건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함을 나타낸다. (O/X)
- ✓ 화이트헤드는 전통적인 시간과 공간 개념을 유지하였다. (O/X)
- ✓ 유기체 철학은 생물학과 생태학뿐만 아니라 윤리학과 사회학에도 응용될 수 있다. (O/X)

정답: XOXOX

2025 인예11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의 내용 (2)
수특 97p	

에드워드 윌슨의 사회생물학은 인간과 동물의 사회적 행동을 생물학적 기초로 설명하려는 학문이다. 이 이론은 진화생물학과 행동생태학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의 사회적 행동이 유전적 요인과 자연 선택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윌슨의 사회생물학은 인간의 도덕성, 협력, 이타주의, 공격성 등 복잡한 행동들을 유전적 적응의 산물로 해석하며, 이러한 행동이 종의 생존과 번영에 기여한다고 본다.

동양철학에서는 성선설과 성악설이라는 두 가지 인간 본성에 대한 관점이 존재한다. 성선설은 인간이 본래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주장하며, 대표적인 사상가는 맹자이다. 맹자는 인간이 타고난 선한 본성을 바탕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믿었다. 반면, 성악설은 인간이 본래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주장하며, 대표적인 사상가는 순자이다. 순자는 인간이 교육과 규범을 통해 본성을 교정하고 사회적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사회생물학과 동양철학의 성선설 및 성악설은 인간 본성과 사회적 행동의 기원에 대해 상이한 관점을 제시한다. 윌슨의 사회생물학은 인간 행동의 유전적 기초를 강조하며, 자연 선택에 의해 형성된 본능과 적응의 결과로서 사회적 행동을 설명한다. 이는 인간의 행동이 생물학적으로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성선설이나 성악설과 차이가 있다. 성선설과 성악설은 인간의 도덕적 본성을 중심으로 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려는 철학적 접근이지만, 사회생물학은 생물학적, 진화론적 관점에서 인간 행동을 해석한다.

그러나 사회생물학은 인간 행동의 유전적 기초를 인정하면서도, 환경과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이는 동양철학의 성선설이나 성악설과 공통점을 가지기도 한다. 맹자와 순자 모두 인간이 교육과 수양을 통해 본성을 발휘하거나 교정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는 윌슨의 이론에서 유전자와 환경이 상호작용하여 행동을 형성한다는 점과 유사하다.

결론적으로, 사회생물학과 동양철학의 성선설 및 성악설은 인간 본성과 행동의 기원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제공한다. 사회생물학은 유전적 기초와 자연 선택의 결과로 인간 행동을 설명하며, 동양철학은 도덕적 본성과 교육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 두 접근법은 인간 사회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서로 보완적인 통찰을 제공한다.

OX 퀴즈

- ✓ 사회생물학은 인간 행동의 유전적 기초를 강조한다. (O/X)
- ✓ 성선설은 인간이 본래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주장한다. (O/X)
- ✓ 성악설은 인간이 교육과 규범을 통해 본성을 교정할 수 있다고 본다. (O/X)
- ✓ 사회생물학은 환경과 경험이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다. (O/X)
- ✓ 윌슨의 사회생물학은 인간 행동을 도덕적 본성으로 설명한다. (O/X)

정답: OXOX

2025 인예11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의 내용 (3)
수특 97p	

사회생물학은 생물학적 개념을 사회적 행동과 현상에 적용하여 인간 행동을 설명하려는 학문이다. 이 학문은 주로 유전자 결정론에 기초하며, 이는 생물체의 유전자가 그들의 행동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유전자 결정론은 유전자가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생물체의 행동을 형성한다고 보며, 이는 특정 유전자가 특정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사회생물학은 초기에는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췄으나, 이후 동물 행동 연구로 확장되었다. 일슨(E.O. Wilson)의 연구는 사회생물학의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하였다. 그는 인간 사회를 포함한 모든 사회적 행동이 진화적 적응의 결과라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생물학은 유전적 요소가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게 되었다.

유전자 결정론은 특정 유전자가 특정 행동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다양한 연구 방법을 사용한다. 쌍둥이 연구, 가족 연구, 분자 유전학적 접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유전적 유사성이 높은 쌍둥이들이나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행동의 유사성이 높은지 여부를 조사함으로써 유전자의 영향을 추론한다. 예를 들어,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일란성 쌍둥이들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더라도 유사한 행동 패턴을 보이는 경우, 유전적 요인이 그 행동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유전자 결정론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첫째, 유전자가 행동을 결정짓는 유일한 요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단순화라는 비판을 받는다. 인간의 행동은 유전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 사회적 요인들도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라도 다른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경험을 통해 다른 행동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복잡성을 고려하지 않은 유전자 결정론은 인간 행동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수 있다.

둘째, 유전자 결정론은 행동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행동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역동적인 특성을 지닌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나 학습 같은 환경적 요인은 유전적으로 결정된 행동을 수정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행동의 유전적 기초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행동의 모든 측면을 설명하기 어렵다.

셋째, 유전자 결정론은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정 행동이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때, 이는 개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경감시키는 논리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범죄 행동이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할 경우, 범죄자의 행동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될 수 있다. 이는 법적, 윤리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회생물학과 유전자 결정론은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지만, 이를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이기에는 많은 한계와 논란이 존재한다. 인간 행동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더 깊이 있고 균형 잡힌 인간 행동의 이해가 가능해질 것이다.

OX 퀴즈

- ✓ 사회생물학은 인간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유전적 요소를 강조한다. (O/X)
- ✓ 일슨의 연구는 사회생물학의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하지 않았다. (O/X)
- ✓ 쌍둥이 연구는 유전적 유사성이 행동의 유사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O/X)
- ✓ 유전자 결정론은 행동의 변화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O/X)
- ✓ 사회생물학은 환경적 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O/X)

답: OXOX

2025 인예11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의 내용 (4)
수특 97p	

앨프리드 노스 화이트헤드는 양자역학과 상대성이론에 대해 독특한 철학적 관점을 제시했다. 화이트헤드는 그의 과정철학에서 과학적 이론을 통합하고자 하였으며, 양자역학과 상대성이론을 포함한 현대 물리학의 발전을 반영하려 했다.

화이트헤드는 전통적인 실체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사건(event)이나 과정(process)을 중심으로 한 철학적 틀을 제안했다. 이는 물질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사건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관점이다. 화이트헤드는 이와 같은 과정철학의 틀 내에서 양자역학과 상대성이론을 재해석했다.

양자역학에서 입자는 확률적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한 상태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능한 상태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화이트헤드는 이를 과정의 관점에서 이해했으며, 입자의 상태 변화는 하나의 사건에서 다음 사건으로의 연속적인 전환으로 보았다. 이러한 접근은 양자역학의 비결정론적 성격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사건의 연속성을 강조한다.

상대성이론에 대해서도 화이트헤드는 유사한 접근을 취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은 시공간이 고정된 배경이 아니라, 물질과 에너지에 의해 구부러질 수 있는 유동적인 개념임을 제시한다. 화이트헤드는 이를 수용하며, 시공간 자체도 하나의 사건이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시공간은 물질적 사건과 상호작용하며 변화하는 역동적인 장(field)으로 간주된다.

화이트헤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물리적 현상뿐만 아니라 철학적 문제들도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려 했다. 그는 양자역학과 상대성이론이 제기하는 철학적 질문들을 기존의 실체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그의 과정철학은 현대 과학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과학과 철학 간의 경계를 허물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제시하는 데 기여했다.

OX 퀴즈

- ✓ 화이트헤드는 실체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사건 중심의 철학적 틀을 제안했다. (O/X)
- ✓ 화이트헤드는 양자역학을 입자의 결정론적 성질로 이해했다. (O/X)
- ✓ 화이트헤드는 시공간을 고정된 배경이 아닌 유동적인 개념으로 보았다. (O/X)
- ✓ 화이트헤드는 양자역학과 상대성이론이 제기하는 철학적 질문들을 기존의 실체 중심적 사고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O/X)
- ✓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은 현대 과학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O/X)

정답: OXOXO

2025 실전02-03 수특 303p	마음 읽기에 주목한 데넛의 지향계 이론과 입장 (1)
----------------------------	--------------------------------------

대니얼 데넛(Daniel Dennett)의 지향계 이론은 인공지능, 의식, 그리고 철학적 인지과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개념이다. 데넛의 지향계 이론은 특정 시스템이 목표 지향적 행동을 보일 때, 그 시스템이 마치 의도를 가진 것처럼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해석은 인간의 심리적 상태와 무관하게 시스템의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유용하다.

데넛의 이론은 세 가지 설명 수준으로 구성된다: 물리적 수준(physical stance), 설계 수준(design stance), 그리고 지향 수준(intentional stance)이다. 물리적 수준은 시스템의 물리적 구성 요소와 물리 법칙을 통해 설명하는 접근이다. 설계 수준은 시스템의 구조와 기능적 설계를 통해 행동을 설명하며, 이를 통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한다. 마지막으로, 지향 수준은 시스템이 목표를 추구하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가정하여, 의도와 믿음 같은 지향적 상태를 통해 설명한다.

데넛은 지향 수준의 설명이 시스템의 복잡한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특히 유용하다고 본다. 이는 인간 뿐만 아니라 동물, 그리고 심지어 인공지능 시스템까지 다양한 대상에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로봇이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할 때, 우리는 그 로봇이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은 로봇의 행동을 더 쉽게 이해하고 예측하게 해준다.

지향계 이론은 특히 인공지능 연구와 관련이 깊다. 인공지능 시스템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있어, 그 시스템이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 이는 인공지능이 실제로 의식을 가지거나 의도를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가정이 실용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향계 이론은 복잡한 시스템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데넛의 지향계 이론은 인간의 의식과 자유의지에 대한 철학적 논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간의 행동을 지향적 상태로 설명함으로써, 데넛은 인간의 의식과 의도가 물리적 세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탐구한다. 이는 자유의지와 도덕적 책임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며, 인간 행동의 근본적인 이해를 돕는다.

OX 퀴즈

- ✓ 데넛의 지향계 이론은 시스템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유용하다. (O/X)
- ✓ 물리적 수준은 시스템의 물리적 구성 요소와 법칙을 통해 설명한다. (O/X)
- ✓ 지향 수준은 시스템이 목표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O/X)
- ✓ 데넛의 이론은 인공지능 연구와 관련이 깊다. (O/X)
- ✓ 데넛은 지향계 이론을 통해 인간의 의식과 자유의지를 탐구한다. (O/X)

정답: 00X00

2025 실전02-03 수특 303p	마음 읽기에 주목한 데넷의 지향계 이론과 입장 (2)
----------------------------	--------------------------------------

다니엘 데넷의 다중 실현 가능성 이론은 철학적 기능주의의 핵심 개념 중 하나로, 정신 상태가 다양한 물리적 상태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동일한 정신 상태가 다양한 물리적 시스템에서 실현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인공지능과 인지과학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데넷의 다중 실현 가능성 이론은 철학적 기능주의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기능주의는 정신 상태를 그 기능적 역할로 정의하며, 이는 특정한 물리적 기초에 국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고통'이라는 정신 상태는 특정한 신경 회로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신경 구조나 인공 시스템에서도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정신 상태를 물리적 상태와 동일시하는 물리주의적 접근과는 달리, 정신 상태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강조한다.

다중 실현 가능성은 인공지능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인간의 정신 상태를 모방하려면, 인간의 뇌와 동일한 구조를 가질 필요가 없으며, 다양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조를 통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인공지능의 발전과 구현에 있어 유연성과 다양성을 허용하며,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해 인공지능의 기능을 확장할 수 있게 한다.

데넷은 다중 실현 가능성을 통해 마음의 본질과 그 구현 방식을 재고하게 한다. 이는 심리철학에서 정신 상태와 물리적 상태의 관계를 탐구하는 중요한 논의로 자리잡았다. 다중 실현 가능성은 심리적 상태가 특정한 물리적 상태와 일대일 대응 관계를 맺지 않으며, 다양한 물리적 구조에서 동일한 심리적 상태가 실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은 정신의 물리적 환원 가능성을 비판하며, 정신 상태의 복잡성과 다원성을 인정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다중 실현 가능성은 생물학적 진화에도 연결될 수 있다. 생물학적 기능은 다양한 종에서 유사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동일한 기능이 다양한 생물학적 구조에서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비행의 기능은 새, 박쥐, 곤충 등 다양한 생물에서 다른 방식으로 실현된다. 이러한 생물학적 다형성은 정신 상태의 다중 실현 가능성과 유사한 논리를 제공하며, 기능적 역할이 물리적 구현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데넷의 다중 실현 가능성 이론은 정신 상태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며, 이는 인공지능, 인지과학, 심리철학, 생물학적 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이 이론은 정신 상태를 특정한 물리적 상태에 국한하지 않으며, 다양한 물리적 구조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접근은 정신의 본질과 구현 방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될 수 있다.

OX 퀴즈

- ✓ 다중 실현 가능성은 동일한 정신 상태가 다양한 물리적 상태에 의해 구현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O/X)
- ✓ 데넷의 이론은 정신 상태가 특정한 물리적 상태와 일대일 대응 관계를 맺는다고 본다. (O/X)
- ✓ 다중 실현 가능성은 인공지능 연구에 유연성과 다양성을 제공한다. (O/X)
- ✓ 데넷은 정신 상태의 물리적 환원 가능성을 강조한다. (O/X)
- ✓ 다중 실현 가능성은 생물학적 진화에도 연결될 수 있다. (O/X)

정답: OXXOX

**이비에스
배경지식의
이해**

MEMO

이비에스
배경지식의
이해

DAY 6

2025 인예01	『삼국사기』 편찬에 담긴 김부식의 의도 (1)
수특 54p	

《삼국사기》는 고려 중기, 12세기 초엽에 김부식에 의해 편찬된 한국의 고대 역사서로,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 책은 한국 고대사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으며, 편찬의 역사적 배경은 복잡하고 다층적이다.

첫째, 고려의 정치적 상황이 《삼국사기》 편찬에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고려는 918년에 건국된 이후, 여러 차례의 왕권 다툼과 귀족 간의 권력 투쟁을 겪었다. 특히 인종(1122-1146) 시기에는 문벌 귀족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김부식은 이러한 귀족 정치의 중심 인물 중 하나였다. 김부식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고려 왕조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 삼국의 역사를 정리하고 체계화할 필요성을 느꼈다.

둘째, 《삼국사기》는 당대의 유교적 이념과 학문적 전통에 기반하여 편찬되었다. 김부식은 유교적 사상에 깊이 영향을 받았으며, 이는 《삼국사기》의 편찬 방식과 내용에 반영되었다. 그는 사서 편찬의 전범으로 중국의 사마천의 《사기》와 반고의 《한서》를 모델로 삼았으며, 이들 사서의 형식을 참고하여 삼국의 역사를 연대기 순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유교적 윤리와 도덕적 교훈을 강조하여, 역사를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닌 도덕적 교훈을 주는 교훈서로 구성하였다.

셋째, 《삼국사기》의 편찬은 고려 사회의 문화적 자긍심과 정체성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고려는 당시 송나라와의 교류를 통해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있었으나, 동시에 자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자 하는 의지도 강했다. 김부식은 삼국의 역사를 정리함으로써, 고려가 신라의 후계자임을 주장하고,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키려 하였다.

넷째, 《삼국사기》는 당시의 학문적 발전과 관련이 깊다. 고려 중기에는 국학(國學)이 설립되고 학문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많은 학자가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고 기록하였다. 김부식도 이러한 학문적 풍토 속에서 활동한 인물로서, 당대의 지식인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방대한 역사적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었다. 이는 《삼국사기》가 당시의 학문적 성과를 집대성한 결과물임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삼국사기》의 편찬은 고려의 정치적 상황, 유교적 이념과 학문적 전통, 문화적 자긍심과 정체성 고취, 학문적 발전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김부식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삼국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록함으로써, 고려 사회의 역사적 이해를 심화시키고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기여하였다.

계적으로 정리하고 기록함으로써, 고려 사회의 역사적 이해를 심화시키고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기여하였다.

OX 퀴즈

- ✓ 김부식은 고려 인종 시기에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O/X)
- ✓ 《삼국사기》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닌 도덕적 교훈을 강조한 책이다. (O/X)
- ✓ 《삼국사기》는 삼국의 역사를 연대기 순으로 정리한 역사서이다. (O/X)
- ✓ 김부식은 중국의 사서 형식을 참고하지 않고 독자적인 형식으로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O/X)
- ✓ 고려 중기는 국학의 설립과 학문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시기였다. (O/X)

정답: 000X

2025 인예01	『삼국사기』 편찬에 담긴 김부식의 의도 (2)
수특 54p	

《삼국사기》는 고려 인종의 명에 따라 김부식이 1145년에 편찬한 한국의 역사서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 역사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의 편찬에는 명확한 정치적 의도와 유교적 역사관이 반영되어 있다.

먼저, 《삼국사기》의 정치적 의도를 살펴보면, 고려 왕조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고려는 후삼국을 통일한 이후, 자신의 통치 권력을 정당화하고 안정시키기 위해 역사서의 편찬이 필요했다. 특히, 인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 중앙집권적 체제를 확립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역사적 정통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 《삼국사기》는 이러한 배경에서 왕조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고려의 통치가 역사적으로 정당함을 입증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삼국사기》는 유교적 역사관을 반영하고 있다. 김부식은 유학자였으며, 유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역사를 기술했다. 유교적 역사관은 역사를 도덕적 교훈과 정치적 교훈을 제공하는 도구로 본다. 즉, 과거의 역사를 통해 후세에 교훈을 주고, 왕조의 통치 원리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교적 역사관은 《삼국사기》의 서술 방식과 내용에 깊이 반영되어 있다.

《삼국사기》는 유교적 덕목을 강조하며, 특히 충(忠), 효(孝), 인(仁) 등의 가치를 중요시한다. 이러한 가치는 왕과 신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강조되며,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기본 원리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신라의 건국 신화나 주요 인물들의 행적을 서술할 때, 충성과 효를 중시하는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유교적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고려 왕조가 유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한 통치 이념을 확립하고자 했음을 반영한다.

또한, 《삼국사기》는 정사(正史)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편년체 형식을 취하고 있다. 편년체는 연대순으로 사건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이는 유교적 역사서술의 전통적 방식이다. 이를 통해 역사적 사건의 인과 관계를 명확히 하고, 도덕적 교훈을 제공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김부식은 이를 통해 역사가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도덕적 판단과 교훈을 담은 서술임을 강조하고자 했다.

또한, 《삼국사기》의 서술에서 김부식은 신화적 요소를 배제하고, 합리적이고 사실적인 기술을 지향했다. 이는 유교적 역사관의 또 다른 특징으로, 역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서술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예를 들어, 고조선의 건국 신화나 단군 신화 등의 내용을 배제하고, 삼국

의 역사적 사실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했다. 이는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고자 하는 유교적 관점에서, 신화적 요소보다는 실증적 사실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삼국사기》는 고려 왕조의 정치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유교적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찬되었다. 이를 통해 고려 왕조는 자신의 통치 이념을 정당화하고,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자 했다. 또한, 유교적 역사관을 바탕으로 역사를 도덕적 교훈과 정치적 교훈을 제공하는 도구로 삼아, 후세에 교훈을 주고자 했다. 이러한 점에서 《삼국사기》는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라, 정치적 의도와 유교적 이념이 결합된 중요한 역사적 산물이다.

OX 퀴즈

- ✓ 《삼국사기》는 고려 인종의 명에 따라 김부식이 편찬하였다. (O/X)
- ✓ 《삼국사기》의 편찬 목적은 고려 왕조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O/X)
- ✓ 김부식은 《삼국사기》에서 신화적 요소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O/X)
- ✓ 유교적 역사관은 역사를 도덕적 교훈과 정치적 교훈을 제공하는 도구로 본다. (O/X)
- ✓ 《삼국사기》는 편년체 형식을 취하여 연대순으로 사건을 서술하였다. (O/X)

정답: 00X00

2025 인예01	『삼국사기』 편찬에 담긴 김부식의 의도 (3)
수특 54p	

유교적 역사관은 동아시아 역사서 편찬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유교는 인간의 도덕성과 사회 질서를 중시하는 사상으로, 역사서 편찬 시에도 이러한 가치를 반영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유교적 역사관은 역사적 사건을 도덕적 교훈을 제공하는 사례로 해석하고, 군주와 신하의 관계를 강조하는 특징을 보인다.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역사서 중 하나인 『사기』는 사마천이 편찬한 역사서로, 유교적 관점에서 역사적 사건을 기술하고 있다. 사마천은 역사를 통해 도덕적 교훈을 전달하고, 정치적 권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 이러한 유교적 역사관은 후대의 역사서 편찬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중국의 『삼국지』, 『자치통감』 등은 모두 유교적 가치를 중시하며 편찬된 역사서이다.

한국에서도 유교적 역사관은 역사서 편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역사서인 『조선왕조실록』은 유교적 가치관에 기초하여 편찬되었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왕조의 역대 왕들의 통치 기록을 상세히 담고 있으며, 왕과 신하의 도덕적 행위를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유교적 역사관이 조선시대의 정치와 사회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유교적 역사관은 역사서 편찬 시 사실의 기술뿐만 아니라 도덕적 판단을 포함시키는 특징을 가진다. 이는 역사서를 단순한 기록물이 아닌, 후대에 교훈을 주는 도덕적 지침서로 기능하게 한다. 또한, 유교적 역사관은 군주 중심의 역사 기술을 중시하며, 군주의 도덕성과 통치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역사관은 동아시아 역사서 편찬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유교적 역사관은 역사적 사실을 해석하는 데 있어 한계를 가지기도 한다. 도덕적 평가를 중시하다 보니, 역사적 사건의 복잡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군주 중심의 역사 기술은 다양한 사회 계층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유교적 역사관은 동아시아 역사서 편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 왔으며, 현재까지도 중요한 연구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OX 퀴즈

- ✓ 유교적 역사관은 역사서 편찬 시 도덕적 교훈을 제공하는 사례로 해석한다. (O/X)
- ✓ 사마천의 『사기』는 유교적 관점에서 역사적 사건을 기술한 대표적인 예이다. (O/X)
- ✓ 『조선왕조실록』은 유교적 가치관에 기초하여 편찬된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역사서이다. (O/X)
- ✓ 유교적 역사관은 군주 중심의 역사 기술을 중시하지 않는다. (O/X)
- ✓ 유교적 역사관은 역사적 사실을 해석하는 데 있어 한계를 가진다. (O/X)

답: 000X0

2025 유형02가	행복에 대한 동아시아 문화권 민간의 관점과 유가, 도가의 관점 (1)
수완 13p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행복의 개념은 고대 철학과 현대 사회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복합적인 가치체계이다. 전통적으로 동아시아 문화권은 유교, 불교, 도교의 사상적 영향을 깊이 받았다. 유교에서는 가족과 사회적 조화를 중시하며, 이를 통해 개인의 행복을 추구한다. 가정 내에서 효(孝)를 강조하며, 사회적 관계에서는 충(忠)을 강조하는 유교적 가치관은 개인의 행복을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찾도록 한다.

불교에서는 개인의 내면적 평온과 깨달음을 통한 행복을 추구한다. 불교는 인생의 고통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친다. 특히, 불교는 무상(無常)과 무아(無我)를 강조하며, 집착을 버리고 자비와 지혜를 통해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가르침은 동아시아 사람들의 내면적 성찰과 마음의 평정을 중요시하게 만든다.

도교는 자연과의 조화를 통한 행복을 강조한다. 도교는 인간이 자연의 일부분임을 깨닫고,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추구한다. 도가 사상은 무위자연(無爲自然)을 통해 인위적 욕망을 줄이고, 자연스러운 삶을 통해 행복을 찾는 것을 권장한다. 이러한 사상은 동아시아 사람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생활 방식을 중요시하게 만든다.

현대에 이르러 동아시아 문화권의 행복 개념은 서구적 가치와의 접촉을 통해 더욱 다양화되었다. 경제 발전과 도시화는 물질적 풍요와 개인주의적 행복 추구를 확산시켰다. 그러나 동시에 전통적인 가치와 현대적 가치 사이의 갈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에서는 경제적 성공과 사회적 지위가 중요한 행복의 요소로 여겨 지지만, 동시에 전통적인 가족 가치와 공동체 정신을 중시하는 경향도 여전히 강하다.

동아시아 문화권의 행복은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과도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샤오강 사회'(小康社會)라는 목표를 통해 전반적인 생활 수준 향상과 사회적 안정을 중시한다. 이는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전체 사회의 행복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동아시아 문화권의 행복은 전통적인 유교, 불교, 도교의 가르침과 현대적 사회 변화의 영향을 받아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개인의 내면적 평온과 사회적 조화,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물질적 풍요와 사회적 지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며 동아시아 사람들의 행복을 구성하고 있다.

OX 퀴즈

- ✓ 유교에서는 개인의 행복을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찾도록 한다. (O/X)
- ✓ 불교는 인생의 고통을 부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친다. (X)
- ✓ 도교는 자연과의 조화를 통한 행복을 강조한다. (O/X)
- ✓ 현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전통적 가치와 서구적 가치의 접촉으로 행복 개념이 다양화되었다. (O/X)
- ✓ 중국의 '샤오강 사회'는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O/X)

정답: OXOX

2025 유형02가	행복에 대한 동아시아 문화권 민간의 관점과 유가, 도가의 관점 (2)
수완 13p	

동양과 서양의 행복관 비교에 대한 논의는 동서양의 문화적, 철학적 전통의 차이를 반영하며, 각 문화권에서 행복을 정의하고 추구하는 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필요로 한다. 동양의 행복관은 주로 유교, 도교, 불교와 같은 철학적, 종교적 전통에서 기인하며, 서양의 행복관은 그리스-로마 철학, 기독교 전통, 계몽주의 사상에서 영향을 받았다.

동양의 행복관은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중시한다. 유교는 개인의 도덕적 완성과 사회적 조화를 강조하며, 이는 가정과 사회 내에서의 역할 수행과 덕행을 통해 달성된다. 도교는 자연과의 조화, 무위자연(無爲自然)을 통해 얻는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삶을 강조한다. 불교는 고통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평온을 추구한다. 이러한 동양적 행복관은 주로 개인의 내면적 성찰과 자기 완성을 중시하며, 외적인 성공보다는 내적인 조화와 평안을 강조한다.

반면 서양의 행복관은 개인의 권리와 자율성, 그리고 외적 성취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최고의 선'으로 간주하며, 이를 위해서는 덕을 실천하고, 지적, 윤리적 탁월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최고의 행복으로 보고, 육체적 쾌락보다는 정신적 평온을 중시했다. 계몽주의 시대에는 합리성과 자율성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강조되었으며, 현대 서양 사회에서는 물질적 풍요와 개인의 권리, 자유가 행복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동서양 행복관의 차이는 각 문화권의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서 기인한다. 동양의 전통 사회는 공동체와 조화를 중시하며, 개인의 행복이 공동체의 행복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이에 반해 서양의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와 자율성을 강조하며,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행복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차이는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에서도 나타난다. 동양에서는 명상, 자기 수양, 가족 및 사회적 역할의 수행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반면, 서양에서는 개인의 성취, 자아 실현, 물질적 풍요를 통해 행복을 추구한다.

그러나 현대 글로벌화된 사회에서는 동서양의 행복관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하고 있다. 서양에서는 명상, 요가와 같은 동양적 수련법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동양에서는 개인의 자율성과 권리를 중시하는 서양적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융합은 새로운 형태의 행복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 가치관과 현대적

요구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OX퀴즈

- ✓ 동양의 행복관은 주로 유교, 도교, 불교와 같은 철학적, 종교적 전통에서 기인한다. (O/X)
- ✓ 서양의 행복관은 고대 그리스 철학, 기독교 전통, 계몽주의 사상에서 영향을 받았다. (O/X)
- ✓ 동양의 행복관은 외적인 성공보다는 내적인 조화와 평안을 강조한다. (O/X)
- ✓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최고의 선'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O/X)
- ✓ 현대 글로벌화된 사회에서는 동서양의 행복관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하고 있다. (O/X)

정답:000X0

2025 유형02가	행복에 대한 동아시아 문화권 민간의 관점과 유가, 도가의 관점 (3)
수완 13p	

칸트의 행복론은 그의 윤리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칸트는 행복을 쾌락주의적 혹은 결과론적인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을 경계하였다. 대신, 그는 행복을 이성적 존재자로서 도덕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만족감으로 보았다. 칸트에게 있어 행복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도덕적 행위의 결과로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칸트의 윤리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선의지'이다. 선의지는 그 자체로 무조건적 가치를 가지며, 다른 어떠한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이는 도덕 법칙을 따르고자 하는 순수한 의지로서, 행위의 결과가 아닌 의지 그 자체가 선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칸트는 도덕적 행위를 할 때 그 결과에 연연해서는 안 되며, 오직 도덕 법칙에 따라 의지를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행복에 대한 칸트의 입장은 그의 '윤리 형이상학 기초'에서 더욱 명확해진다. 그는 "이성이 인간에게 부여된 것은 행복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지를 선하게 만들기 위함이다"라고 주장한다. 이는 인간이 이성적 존재로서 도덕 법칙에 따라 행동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칸트에게 있어 행복은 도덕적 의무를 다한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지, 그 자체가 직접적인 추구의 대상은 아니다.

또한, 칸트는 행복을 각 개인의 주관적인 상태로만 보지 않았다. 그는 행복을 사회적 맥락에서도 이해하였다. 즉, 개인의 행복은 도덕적 공동체 내에서 다른 이들과의 조화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행복이 타인의 행복과 상충하지 않으며, 오히려 서로의 도덕적 행위를 통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칸트의 행복론은 현대의 윤리학과 도덕철학에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의 사상은 단순히 결과를 중시하는 현대적 효용주의와는 달리, 의도와 의지를 중시하는 도덕적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칸트는 도덕적 행위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OX 퀴즈

- ✓ 칸트는 행복을 도덕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만족감으로 보았다. (O/X)
- ✓ 칸트는 선의지를 행위의 결과로 판단하였다. (O/X)
- ✓ 칸트는 행복을 오직 개인의 주관적인 상태로만 보았다. (O/X)
- ✓ 칸트의 윤리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선의지'이다. (O/X)
- ✓ 칸트는 도덕적 행위를 할 때 결과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O/X)

정답: 00X00

**이비에스
배경지식의
이해**

MEMO

**이비에스
배경지식의
이해**

DAY 7

2025 인예12	리를 중심으로 세계를 설명하려 한 기정진의 사상 (1)
수특 101p	

이이는 조선 중기의 유학자로서 그의 철학적 사상은 주로 주자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이의 합일설은 그의 사상의 핵심 개념 중 하나로, 이는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를 통합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이이의 합일설에서 '이(理)'는 우주 만물의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로, 모든 사물에 내재하는 법칙을 의미한다. 반면 '기(氣)'는 물질적이고 가변적인 요소로, 사물의 형성과 변화를 주관하는 힘이다. 이이는 이와 기가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항상 함께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우주와 인간의 조화를 설명한다.

이이의 철학에서는 이와 기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면서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이기불상리(理氣不相離)'라는 개념으로 표현된다. 즉, 이와 기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존재로, 모든 사물의 형성과 변화는 이와 기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이는 이러한 관계를 통해 우주와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이의 합일설은 인간의 도덕적 행위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이는 인간의 마음속에 이와 기가 모두 존재하며, 이로 인해 인간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인간은 이의 본질적인 선함을 바탕으로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기의 영향을 받아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이이의 합일설은 도덕적 행위의 근거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이는 또한 이이의 합일설을 통해 사회적 조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그는 사회 질서와 개인의 도덕적 성장이 이와 기의 조화로운 결합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이이는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간의 도덕적 수양과 사회적 질서의 유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이의 합일설은 이이의 철학적 사상 전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이다. 이는 인간과 우주, 도덕과 사회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설명하려는 그의 노력이 담겨 있으며, 그의 철학적 깊이를 보여준다.

OX퀴즈

- ✓ 이이의 합일설에서 '이'는 물질적이고 가변적인 요소를 의미한다. (O/X)
- ✓ 이이는 이와 기가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항상 함께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O/X)
- ✓ 이이의 합일설은 도덕적 행위의 근거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O/X)
- ✓ 이이는 이이의 합일설을 통해 사회적 조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O/X)
- ✓ 이이의 합일설은 이이의 철학적 사상 전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아니다. (O/X)

정답: X00X

2025 인예12	리를 중심으로 세계를 설명하려 한 기정진의 사상 (2)
수특 101p	

기정진은 조선 후기의 유학자로, 이기론(理氣論)에 대한 그의 독창적인 해석으로 유명하다. 이기론은 우주의 근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제안된 철학적 개념으로, '이(理)'와 '기(氣)'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이'는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보편적이고 변하지 않는 원리이며, '기'는 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물질적이고 역동적인 힘이다.

기정진의 이기론은 송대 주자학의 이기론을 계승하면서도, 이를 새롭게 재해석하였다. 그는 '이'와 '기'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설명하며, 둘 사이의 상호작용을 강조했다. 주자학에서 '이'는 '기'를 주재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며, '기'는 '이'의 구현물로 간주된다. 그러나 기정진은 '이'와 '기'가 상호의존적이며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이'가 '기'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기' 또한 '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이'와 '기'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항상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기정진은 또한 '이'와 '기'의 조화를 통해 사회적 질서와 개인의 도덕적 성취를 설명하였다. 그는 인간의 도덕적 성취가 '이'와 '기'의 조화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이는 '이'의 도덕적 원리가 '기'의 물질적 힘과 조화를 이룰 때, 인간은 도덕적으로 완성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정진은 도덕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도덕적 성취를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기정진의 이기론은 당시 조선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의 사상은 유학자들 사이에서 활발히 논의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학문적 논쟁이 일어났다. 기정진은 그의 이기론을 통해 조선 후기 사회의 도덕적, 철학적 담론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그는 '이'와 '기'의 관계를 통해 인간의 도덕적 성취와 사회적 질서를 설명함으로써, 조선 후기 유학 사상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기정진의 이기론은 현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철학적 가치를 지닌다. 그의 사상은 동양 철학의 깊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며, 현대 철학적 담론에서도 유의미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기정진의 이기론은 '이'와 '기'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통해 인간과 우주의 본질을 탐구하는 철학적 접근을 제시함으로써, 여전히 학문적 관심을 끌고 있다.

OX퀴즈

- ✓ 기정진은 조선 후기의 유학자였다. (O/X)
- ✓ 기정진의 이기론에서는 '이'가 '기'를 주재한다고 보았다. (O/X)
- ✓ 기정진은 '이'와 '기'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O/X)
- ✓ 기정진은 도덕적 성취가 '이'와 '기'의 조화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O/X)
- ✓ 기정진의 이기론은 현대에도 중요한 철학적 가치를 지닌다. (O/X)

정답: 00X00

2025 인예12	리를 중심으로 세계를 설명하려 한 기정진의 사상 (3)
수특 101p	

임성주의 이기론은 동양 철학에서 중요한 사상으로, 주로 유학과 도가의 이론을 바탕으로 인간의 도덕적 실천과 사회적 질서를 탐구한다. 임성주는 이기론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려 하였으며, 이를 위해 '이'와 '기'라는 두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기론에서 '이(理)'는 우주의 근본 원리이자 보편적인 법칙을 의미한다. 이는 형이상학적이며, 모든 사물의 본질과 규범을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기(氣)'는 물질적이고 구체적인 에너지를 가리키며, 이는 이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이다. 이와 기는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이가 기를 통해 현실 세계에 나타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은 우주와 인간, 자연과 사회의 조화를 강조하는 동양 철학의 기본 사상과 일치한다.

임성주는 이기론을 통해 인간의 도덕적 실천을 강조하였다. 그는 인간이 이와 기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조화롭게 다룰 때, 도덕적 완성과 사회적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주자의 성리학에서 이어진 개념으로, 주자는 인간의 마음을 수양하고 이치를 깨달음으로써 도덕적 인격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임성주는 이러한 주자의 견해를 발전시켜, 도덕적 실천이 단순한 개인의 수양을 넘어 사회 전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론은 또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임성주는 자연의 이치가 인간의 도덕적 행동에 반영된다고 보았으며,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인간의 도덕적 의무라고 주장했다. 이는 도가의 자연주의와도 연결되며,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강조한다.

이기론은 동양 철학의 중요한 부분으로, 현대에도 그 가치와 의미가 지속적으로 재평가되고 있다. 임성주의 이기론은 인간의 도덕적 실천과 사회적 질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하며, 이는 동양 철학의 풍부한 전통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OX 퀴즈

- ✓ 임성주의 이기론에서 '이'는 우주의 근본 원리이자 보편적인 법칙을 의미한다. (O/X)
- ✓ '기'는 형이상학적이며 모든 사물의 본질과 규범을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O/X)
- ✓ 임성주는 이기론을 통해 도덕적 실천이 사회 전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O/X)
- ✓ 이기론에서는 이와 기가 서로 분리될 수 있으며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본다. (O/X)
- ✓ 이기론은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인간의 도덕적 의무라고 주장한다. (O/X)

정답: OXOXO

2025 인예05 수특 71p	개화기 과학기술에 대한 이항로와 박은식의 생각 (1)
------------------------	--------------------------------------

개화기는 조선이 전통적인 사회 구조와 가치관을 탈피하고 근대적 국가로 전환하는 중요한 시기였다. 이 과정에서 서양의 과학기술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조선의 학자들은 이를 수용하고 평가하는 다양한 입장을 취했다. 서양의 과학기술 도입은 조선 사회에 혁신을 가져왔으나,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우선, 개화기 서양 과학기술의 도입 배경에는 조선의 외부적 위기와 내부적 변혁 요구가 있었다. 서양 열강의 압박과 이에 따른 불평등 조약 체결은 조선이 서양 문물을 수용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 성공 사례 역시 조선에게 큰 자극이 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조선은 개혁과 근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양의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했다.

서양 과학기술의 도입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의학과 군사 기술이었다. 서양 의학의 도입은 전통 한의학과 충돌을 야기하기도 했으나, 효용성이 입증되면서 점차 수용되었다. 특히 전염병 예방과 치료에서 서양 의학의 성과는 두드러졌다. 또한, 군사 기술의 경우 서양식 무기와 전술의 도입이 국방력 강화에 큰 기여를 했다. 이는 일본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서양식 군사 교육과 훈련이 강화된 결과였다.

서양 과학기술 수용에 대한 학자들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첫 번째 입장은 서양 과학기술의 적극적인 수용을 주장한 개화파의 입장이다. 이들은 서양의 과학기술이 조선의 발전과 자주성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보았다. 개화파 학자들은 신문, 잡지 등을 통해 서양 과학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의 근대화를 이루고자 했다.

반면, 전통을 중시하는 수구파 학자들은 서양 과학기술의 도입이 조선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서양 과학기술이 가져오는 변화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며, 전통적인 방식의 유지를 주장했다. 이들의 입장은 서양의 과학기술이 물질적 발전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정신적, 문화적 측면에서의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인했다.

서양 과학기술의 도입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는 박영효, 김옥균, 서재필 등이 있다. 이들은 일본을 비롯한 서양 국가들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조선의 근대화를 추진하고자 했다. 특히 박영효는 일본의 근대화 과정을 직접 목격하고, 이를 조선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결론적으로, 개화기 서양 과학기술의 수용 과정은 조선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단순히 기술의 도입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과 대립 역시 중요한 역사적 교훈으로 남아 있다. 조선은 서양의 과학기술을 통해 근대적 국가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전통과 현대화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OX퀴즈

- ✓ 개화기 조선은 외부적 위기와 내부적 변혁 요구로 인해 서양 과학기술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O/X)
- ✓ 서양 의학의 도입은 조선에서 전통 한의학과 충돌을 야기하지 않았다. (O/X)
- ✓ 개화파 학자들은 서양 과학기술의 수용이 조선의 발전과 자주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O/X)
- ✓ 수구파 학자들은 서양 과학기술의 도입이 조선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O/X)
- ✓ 박영효, 김옥균, 서재필 등은 서양 과학기술의 도입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들이다. (O/X)

정답: OXOXO

2025 인예05	개화기 과학기술에 대한 이항로와 박은식의 생각 (2)
수특 71p	

박은식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활동한 한국의 독립운동가, 사상가, 교육자이자 역사가이다. 그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고자 한 노력과 독립운동에 헌신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박은식은 1859년 9월 30일 황해도 황주에서 태어났다. 유년 시절부터 한학을 배웠으며, 성리학을 통해 유교적인 가치를 익혔다. 그는 1894년 갑오개혁 이후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하였고, 이후 독립협회에 가입하여 민족주의 사상을 확립하게 된다. 박은식은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의 식민통치에 저항하며,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역사 연구와 교육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의 주요 업적으로는 한국사의 연구와 저술 활동이 있다. 박은식은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지혈사' 등을 저술하여 한국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록하였다. 특히, 그는 한국사의 흐름을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민족의식 고취에 큰 역할을 하였다. '한국통사'는 삼국시대부터 조선말까지의 역사를 다루며, 일본의 식민지배를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독립운동지혈사'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상세히 기록한 저서로,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박은식은 교육자로서의 활동도 두드러진다. 그는 대성학교와 보성전문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으며, 한국 청년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의 교육 철학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들이 민족적 자긍심을 가지고 독립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박은식은 1920년대 후반 상해로 망명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직을 맡았다. 그는 임시정부의 국무총리와 대통령을 역임하며, 독립운동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그는 1936년 11월 1일, 중국 상해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박은식의 생애는 한국의 독립운동과 민족주의 역사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저술과 교육 활동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그는 한국 근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OX 퀴즈

- ✓ 박은식은 황해도 황주에서 태어났다. (O/X)
- ✓ 박은식은 한국통사와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저술하였다. (O/X)
- ✓ 박은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을 역임하였다. (O/X)
- ✓ 박은식은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O/X)
- ✓ 박은식은 1936년 상해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O/X)

정답: OOXOX

2025 인예05	개화기 과학기술에 대한 이항로와 박은식의 생각 (3)
수특 71p	

박은식은 그의 문명진화론을 통해 한국의 근대화를 위한 철학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그의 사상은 문명과 과학기술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며, 과학기술의 발전이 문명의 진화를 촉진하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했다. 이는 당시 서양의 과학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동양 문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박은식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사회적, 문화적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과학기술이 인간의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고 믿었다. 이는 근대 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그의 주장과 연결된다. 그는 과학기술 교육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문명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서양과학과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박은식은 서양의 과학기술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한국의 전통과 융합하여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양과학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되,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이는 그가 서양과학을 단순한 모방이 아닌 창조적 융합의 대상으로 보았음을 나타낸다.

과학기술 교육의 중요성은 박은식이 특히 강조한 부분이다. 그는 과학기술이 국가 발전의 근간이 되는 동시에,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구라고 여겼다. 따라서 그는 과학기술 교육이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그가 과학기술 교육을 통해 국민의 지식 수준을 높이고,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박은식의 문명진화론은 결국 과학기술과 교육을 통해 한국의 자주적 근대화를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담고 있다. 그는 서양과학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한국의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으며, 과학기술 교육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고자 했다. 이는 그의 사상이 단순한 이론적 주장이 아닌, 실제 사회적 변화를 이끌기 위한 실천적 방안임을 시사한다.

OX퀴즈

- ✓ 박은식은 문명진화론을 통해 한국의 근대화를 위한 철학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O/X)
- ✓ 박은식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단순한 기술적 진보로 보았다. (O/X)
- ✓ 박은식은 과학기술 교육이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O/X)
- ✓ 박은식은 서양과학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을 지지했다. (O/X)
- ✓ 박은식은 과학기술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구라고 여겼다. (O/X)

답: OXOXO